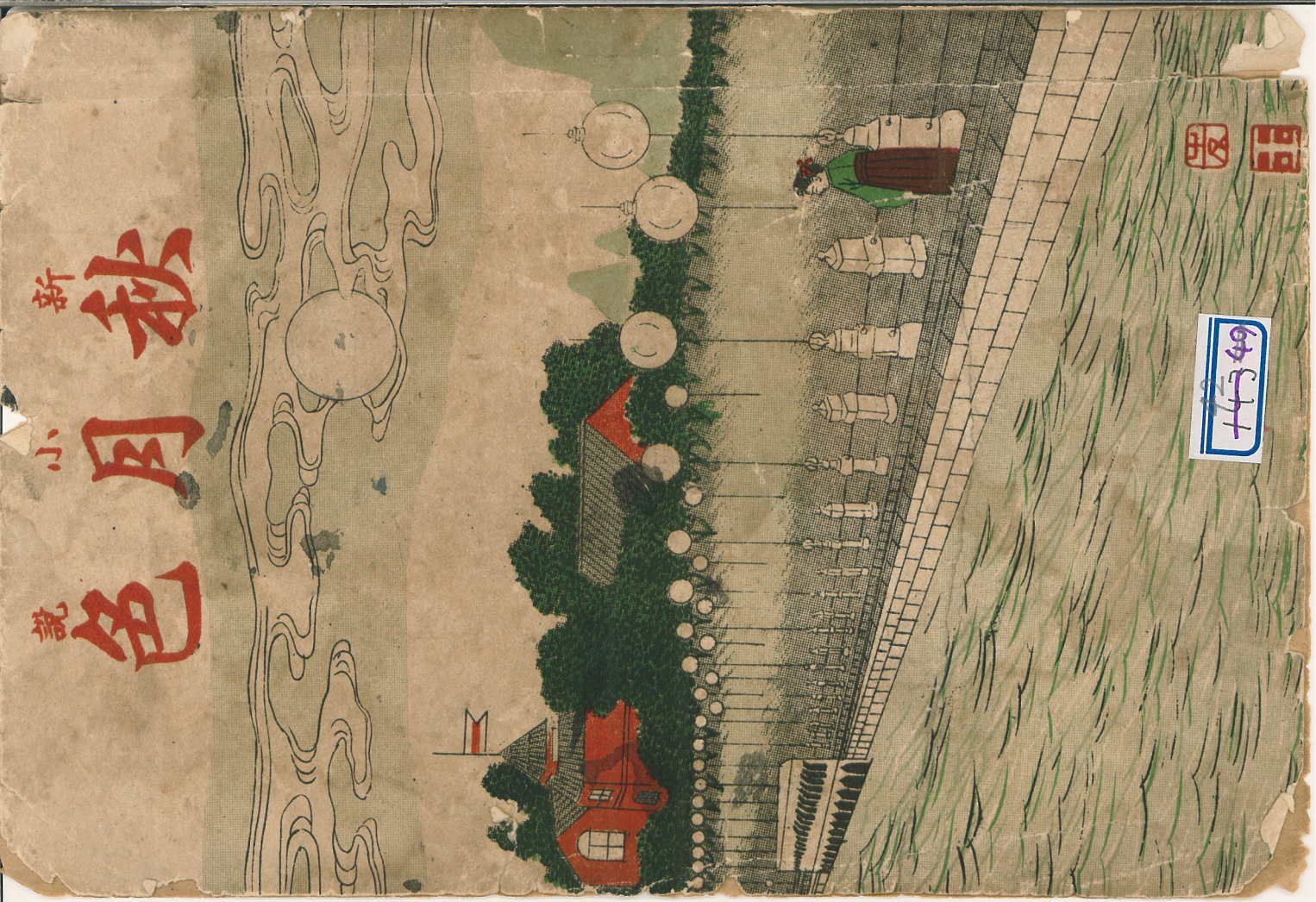


Inches 1 2 3 4 5 6 7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신소설 **추월식** 新小說 **秋月色**

시름업시 오던 가을비가긋치고 슬々부는셔풍이 싸인구름을 쓰러보ᄂᆡ더니 오리알빗갓흔 하ᄂᆞᆯ에 ᄃᆡ셜ᄒᆞᆫ졈 업셔지고 교々ᄒᆞᆫ 츄월식이 텬디에 가득ᄒᆞ니 이ᄯᅥᆨᄂᆞᆫ 사ᄅᆞᆷ사ᄅᆞᆷ마다 공긔신션ᄒᆞᆫ곳에 ᄒᆞᆫ번산보ᄒᆞᆯ 싱각이 도져히나깃더라

ᄇᆞᆰ고밝은 그달빗헤 동경상야공원이 일폭월셰계 (月世界)를 이루엇스니 놉고나진루ᄃᆡᄂᆞᆫ 금벽이 찬란ᄒᆞ며 ᄭᅳᆺ그림ᄌᆞ 대그늘은 셔로얼켜 바다 갓고 풀ᄭᅳᆺ헤 찬이슬은 낫々치 반작거려 아름다온 야경이 그림ᄀᆞᆺ치 영농ᄒᆞᆫᄃᆡ 쾌락ᄒᆞ게 노ᄅᆡ부르고 오락가락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드른 모다 달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더니 밤은 어느ᄯᅥᆨᄂᆞ 되얏ᄂᆞᆫ지 그만ᄅᆞᆫ사ᄅᆞᆷ드리 하나식 둘식다 헤져가고 적々ᄒᆞᆫ 공원에 월식만 교결ᄒᆞᆫ대 그월식안고 불인지 관월교 셕난간에 의지ᄒᆞ야 옷독셧ᄂᆞᆫ ᄉᆞᄅᆞᆷ은 일ᄀᆡ청년 녀학싱이더라

그 녀학싱은 나히 열팔구셰쯤 된듯ᄒᆞ며 신션ᄒᆞᆫ 조화로 머리를 쟝식ᄒᆞ고 ᄌᆞ짓빗 하가마를 단졍ᄒᆞ게 입엇ᄂᆞᆫᄃᆡ 그온화ᄒᆞᆫ ᄃᆡ도가 어느모로 ᄯᅳᆺ어보던지 쳔싱귀인의집 규즁에셔 고이기른 ᄌᆞ근아씨라

그 녀학싱의심즁에ᄂᆞᆫ 무슨싱각이 그리쳡々ᄒᆞᆫ지 힘업시셔셔 달빗만바라 보ᄂᆞᆫᄃᆡ 그달 졍신을 ᄲᅳᆸ아다가 그 녀학싱의 ᄌᆞ식을 ᄌᆞ랑시키랴고 ᄒᆞᆯᄯᅳ시 희고 힌

登録番号 3143
分類番号
圖書番号

얼골에 맑고맑은 광션이 빗취여 그어엽분 용모를 이로 형용히 말ᄒᆞ기 어려우니 누구던지 ᄒᆞᆫ번보고 ᄯᅩᄒᆞᆫ번 다시보지 아니치 못ᄒᆞ깃더라

그 공원속에 남아잇는 ᄉᆞ름은 이녀학싱 ᄒᆞᆫᄉᆞ름ᄲᅮᆫ 인듯ᄒᆞ더니 엇던 하이칼나적소년이 술이 반쯤취ᄒᆞ야 노릭를 부르고 불인지 엽흐로 내려오는ᄃᆡ 파ᄂᆞ마모ᄌᆞ를 푹 숙여쓰고 금테안경은 코허리에 걸고 양복압셥 썩 갈나붓친속으로 츄 ᄂᆞ러진 시계줄은 월광에 빗취여 반쟉々々ᄒᆞ며 바른손에는 반쯤탄 여송연을 손가락에 가마쥐고 왼손으로 단쟝을 드러 향ᄒᆞ는길을 지졈ᄒᆞ고 회동々々ᄂᆡ려오는 모양이 의미ᄒᆞᆫ 부형의지산도 ᄲᅢ 업시보고 남의집시악시도 무던이 버려주엇깃더라

그 소년이 이모양으로 ᄂᆡ려오다가 관월교가에 홀노셧는 녀학싱을 보더니 모ᄌᆞ를 버서들고 반갑게 인ᄉᆞᄒᆞᆫ다

(소년)아 오ᄅᆡ간만에 뵈옵슴니다 그ᄉᆞ이 귀졔건강ᄒᆞ시오닛가

(녀학싱)네 기운엇덥시오

(소년)요ᄉᆞ이는 엇지그리 ᄒᆞᆫ번도 뵈올수업슴닛가

(녀학싱)근일에 몸이 좀불평히셔 아모데도 못ᄀᆞ슴니다

(소년)……아 엇젼지 일요강습회에도 한번 아니오시기에 무슨ᄉᆞ고가 계신가ᄒᆞ고 ᄆᆡ우궁금이 넉이던추이올시다 그ᄅᆡ 지금은 쾌초ᄒᆞ시오닛가



(녀학싱)조곰낫슴니다

(소년)나도 근일에 몸이ᄃᆡ단히 곤ᄒᆞ야 오날도 종일누엇다가 하도울젹ᄒᆞ기에 신션ᄒᆞᆫ 공긔나 좀쏘야불가ᄒᆞ고 나왓더니 비ᄭᅳᆺ헤달빗치야 좀좃슴니다그러ᄂᆞ 츄월석은 령인초창이라더니 그야말로 사ᄅᆞᆷ의 마음을 졍히샹ᄒᆞᆷ니다그려……허…허

(녀학싱)……

(소년)그러나 산본로파 언졔 만나보셧슴닛가

(녀학싱)산본로파가 누구오닛가

(소년)앗다 우리쥬인로파 말슴이오

(녀학싱)글세요 언졔맛나보앗든지오

녀학싱의 ᄃᆡ답이 굿치ᄌᆞ 소년이 무슨말을 ᄒᆞᆯ듯ᄒᆞᆯ듯ᄒᆞ다가 아니ᄒᆞ고 ᄯᅩ우슨말을 ᄒᆞ랴고 입을빙긋빙긋ᄒᆞ다가 못ᄒᆞ더니 녀학싱의 얼골을 다시 ᄒᆞᆫ번 건네다보면셔

(소년)그 로파의게 무슨말슴 드러계시지오

녀학싱은 그말을드럿는지 못드럿는지 아모말 업시 빗쏙 도라셔며 이슬에 져진국화가지를잡고 맑은향긔를 두어번 맛흘ᄲᅮᆫ인ᄃᆡ 구름ᄀᆞᆺ흔 살젹과 옥ᄀᆞᆺ흔반ᄲᅳᆷ이 모다소년의 눈동ᄌᆞ속으로 드러간다 그소년은 그러케 ᄒᆞ기어려온말을ᄒᆞᆫ

마디 간신히 ᄒᆞ얏것마는 녀학싱의 ᄃᆡ답은업스ᄆᆡ 물ᄉᆞ름이 ᄒᆞᆫ참 보다가 말ᄒᆞᆫ 마ᄃᆡ를 ᄯᅩ세ᄂᆡ더라

(소년)그 로파의게도 응당ᄌᆞ셔히 드러게시겟지마는 ᄒᆞᆫ번조용히 맛ᄂᆞᆫ면 ᄒᆞᆯ 말ᄉᆞᆷ이 무ᄒᆞᆫ히 만흔ᄎᆞ을시다

그소년은 녀학싱을 맛나 인ᄉᆞᄒᆞ고 수쟉붓치는 모양이 ᄆᆡ우숙천도 ᄒᆞᆫ듯이 무슌 긴졀ᄒᆞᆫ의논도 잇는듯이 노파를 언져가며 말ᄒᆞᄂᆞᆫᄃᆡ 그 말속에 무슌은근ᄒᆞᆫ 말이 ᄯᅩ드럿는지 녀학싱은 그말ᄃᆡ답도 아니ᄒᆞ고 먼산을ᄒᆞᆫ번 바라보더니

「아마야심ᄒᆞᆫ듯ᄒᆞ니 집으로 도라가겟ᄉᆞᆷ니다 용셔ᄒᆞ십시오」

ᄒᆞ고 쳔々히 거러ᄂᆡ려간다

그소년의 마음에는 엇더ᄒᆞᆫ욕망이 잇는지 녀학싱의 ᄃᆡ답ᄒᆞᄂᆞᆫ양을 ᄃᆞ러보랴고 그말ᄉᆞᆺ을 ᄎᆡ낸듯ᄒᆞ되 녀학싱은 닝연히 ᄉᆞ졀ᄒᆞᄂᆞᆫ모양이니 소년도 그눈치를아랏ᄉᆞᆯ듯ᄒᆞ것마는 무슌싱각으로 ᄂᆡ려가는 녀학싱을 굿이짜라가며 이말져말 ᄯᅩ ᄃᆞ시ᄒᆞᆫ다

(소년)괴로온비가 ᄀᆡ이더니 달빗이야 ᄎᆞᆷ 좃ᄉᆞᆷ니다 공원이란곳은 원ᄂᆡ풍경이 조흔곳이지만은 져달빗이 ᄆᆞᆺ비이ᄂᆞᆫ 공원에싱ᄉᆡᆨ을 더ᄂᆡ니다그려

인간의 리별ᄒᆞ고 맛나ᄂᆞᆫ인연은 실노 부평갓흔 일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럿케 죠흔ᄉᆡ와 그러케 조흔곳에셔 긔약업시 맛ᄂᆞᆫ기는 ᄎᆞᆷ ᄯᅳᆺ밧게 긔회로구



려……

여보시오 조금도 부ᄉᆞ러우실것업소 셔양ᄉᆞ름ᄃᆞ른 신랑신부가 즉졉으로 결혼ᄒᆞᆫ답ᄃᆡ다 우리도 쇼ᄀᆡ니즁ᄆᆡ니 ᄒᆞᆯ것업시 즉졉으로 의론ᄒᆞᆷ이 조치안켓ᄉᆞᆷ닛가

(녀학싱)닷다가 그게 무슌말ᄉᆞᆷ이오

(소년)이러케 싱 시침이 ᄲᅦᆯ것이잇소 악가도 말ᄉᆞᆷᄒᆞ얏거니와 왜 노파를 쇼ᄀᆡ ᄒᆞ야 의론ᄒᆞ던터이 아니오닛가

(녀학싱)기닷케 말ᄉᆞᆷᄒᆞ실것업ᄉᆞᆷ니다 노파던지 누구던지 나는 이왕결심 ᄒᆞᆫ바이잇다고 말ᄒᆞᆫ이상에 당신은 번거히 다시말ᄉᆞᆷᄒᆞ실필요가 업ᄉᆞᆷ니다 다른 일노나 교졔ᄒᆞ실것이오 그말ᄉᆞᆷ은 영구히 단렴ᄒᆞ시오

그녀학싱과 소년의 수작이 이왕도 만히 언론되던 일인듯ᄒᆞᆫᄃᆡ 녀학싱은 이쳐럼거졀ᄒᆞ니 소년이 사ᄅᆞᆷ스러운터갓흐면 이럿케 거졀당ᄒᆞᆯ듯ᄒᆞᆫ 말을당초에 ᄂᆡ지아니ᄒᆞ얏ᄉᆞᆯ터이오 ᄯᅩ 거졀을 당ᄒᆞ얏스면 무안ᄒᆞ야도 져는져ᄃᆡ로가셔 달니나 운동ᄒᆞ야 ᄇᆞᆯ것이엇마는 ᄯᅩ무슌싱각이 그럿케 민쳡ᄒᆞ게 ᄉᆡ로 싱겻던지 가쟝 졍다운체ᄒᆞ고 녀학싱에 엽흐로 밧삭밧삭 다거셔더니

(소년)당신에 결심ᄒᆞᆫ바는 ᄂᆡ가알랴고 ᄒᆞᆯ것업거니와 져긔 져것좀보시오 어제갓치 쟉々ᄒᆞ던도화가 어느겨를에 다나라가고 발셔가을바ᄅᆞᆷ에 단풍이 드

럿소구려 여보우리인싱도 져와갓치 오눌쳥츈이 릭일빅발은 졍혼일이 아니오 이쳐럼 무졍혼 셰월이 살갓치 빠른듸 가온듸 손갓치 잠싼 단녀가는 우리는 이한 셰상을 이러케도 지니고 져럿케도 지니 봅시다그려 허…허…허…허……

소년이 이러케 공경ᄒᆞ던 례모가 다 어듸로가고 말굿치자 션우슴처며 녀학싱의 옥갓흔 손목을 덕 잡으니 녀학싱은 긔가막혀셔

(녀학싱)이것이 무슨무례혼짓이오 졈자는이가 남녀의례우를 싱각지아니ᄒᆞ고 이런야만의 힝위를 누구에게ᄒᆞ시오

ᄒᆞ고 손목을 뿌릿치는듸

(소년)이럿케 큰변될것 무엇잇소 야만커녕 문명국사름은 악슈례만 잘들ᄒᆞ데……이러케 졉문례도 잘들ᄒᆞ고…하…하

ᄒᆞ면셔 혼칭더힉셔 졉문례를 ᄒᆞ랴고 달녀드니 녀학싱은 호졋혼 곳에셔 불의에변괴를 당ᄒᆞ미 분혼마음이 팅즁ᄒᆞ나 소년의픽힝이 이지경에 이르럿스니아모리싱각ᄒᆞ야도 방비홀계칙과 능녁은 하나도업고 다만쥰졀혼 말로달낸다

(녀학싱)여보시오 히외에 유학도ᄒᆞ고 신ᄉᆞ상도 잇다는이가 이런검슈의 힝실을 힝코자ᄒᆞ면 엇지ᄒᆞ자는 말슴이오 당신은 셤부혼 학문과 우월혼 지화가 국가도 빗니고 텬하도 경영ᄒᆞ실터이어늘 지금 일기 녀ᄌᆞ의게 악힝위를



더ᄒᆞ고ᄌᆞᄒᆞ심은 실노 비소망어평일이오구려 어셔 쌀니도라가 회기ᄒᆞ시고 다시법률에 져촉지안키를 부듸쥬의ᄒᆞ시오

(소년)「법률이니 도덕이니 그ᄉᆞ진말은 다히쓸듸잇나 ᄲᅩᆺ흔남녀가 이런조흔곳에셔 맛낫다가 엇지무료히 그져헤져 갈수잇나……」

하…하…하…하…」

소년은 삼쵼쟝 무명업화가 남아미리가쥬(진보라소)활화산화렴처밀듯ᄒᆞ야 례졀이니 렴치니 다 불고ᄒᆞ고 음흉난잡혼말을 함부로 뒤던지며 녀학싱의 가늘고 약혼허리를 덤썩안고 나무수풀 깁고깁흔곳 륙모졍속 어둑 컴컴혼 구셕으로 드러가니 이ᄯᅢ형셰가 솔기병아리찬 모양이라 녀학싱은 호소ᄒᆞᆯ곳도업시긔가막히는 경우를맛ᄂᆞ미 악이 밧짝나셔 모만ᄉᆞᄒᆞ고 졋먹든힘을다써셔 항거ᄒᆞ노라니 두몸이 혼데뒤트러져셔 이리로몰니고 져리로몰니며 죽을지살지 모로고 셔로상지혼다 엇던사름이던지 졔욕망을 쳐오지못ᄒᆞ면 화중이 나는법이라 소년이 불ᄀᆞᆺ흔욕심을 이긔지못ᄒᆞ는즁 녀학싱이 쥭기를 한ᄒᆞ고 방식ᄒᆞ는양에 화중이 왈컥나셔 화중ᄲᅳᆺ헤 악심이 싱겨셔 왼손으로는 녀학싱의 졋 가심을 잔뜩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양복허리에셔 단도를쎄여들더니

(소년)요년아 너 요러케 악지부리는 리유가무엇이니 소위너의결심 ᄒᆞ얏다는것이 무슨그리 쟝혼결심이냐 너이년 너의ᄲᅳᆺ다운혼이 당쟝이칼ᄲᅳᆺ헤 날나

갈지라도 너는 네교집딕로 부리고 쟝부에 가심에 무한훈 한을 ᄆᆡ절터이냐 (녀학싱)오냐 죽고 죽고 또죽고 만번죽을지라도 너ᄀᆞᆺ치 ᄀᆡᄀᆞᆺ훈 놈에게 실졀은 아니ᄒᆞ겟다

그말에 소년의 악심이 더욱심ᄒᆞ야 말이 막ᄉᆞᆺ치ᄌᆞ 번젹드럿는 칼을 그ᄃᆡ로푹 지르는ᄃᆡ 별안간 ᄒᆞᆫ모통이에서 엇던 사름이「이놈아 이놈아」소ᄅᆡ를질으며 급히좃ᄎᆞ오는 바람에 소년은 ᄲᅡᆷ짝놀나 녀학싱 질으던칼도 밋쳐 쌉을ᄉᆡ업시 삼십륙계에 줄힝낭을ᄒᆞ고 녀학싱은「이ᄀᆞ고머니」ᄒᆞᆫ마ᄃᆡ 소ᄅᆡ에 긔졀ᄒᆞ고 ᄯᅡ의너머지니 소슬ᄒᆞᆫ한풍은 나무ᄉᆞ이에 움작이고 춤담ᄒᆞᆫ월식은 셔련에 기우러졋더라

소ᄅᆡ질느고 오는사름은 즁산모ᄌᆞ쓰고 후록고투입은 청년신ᄉᆞ인ᄃᆡ 맛춤 예비히 두엇던것갓치 달여들며 여학싱의 몸에 ᄇᆡ인칼을 ᄲᅦ여들더니 가만히 무슨 싱각을 ᄒᆞᆫ참ᄒᆞ는판에 힝슌ᄒᆞ던슌사가 두어마ᄃᆡ 이상ᄒᆞᆫ 소ᄅᆡ를듯고 차졈々々 오다가 이곳에다다르ᄆᆡ ᄭᅩᆺ봉우리갓흔 여학싱은 몸에 피를흘니고 ᄯᅡ에누엇고 그엽헤는 엇던청년이 손에단도를들고 셧스니 그청년은 갈ᄃᆡ업는 살인범이라 슌사가 그청년을잡고 ᄇᆡᆨ승을ᄉᆞᄂᆡ더니 닷자곳ᄌᆞ로 청년의 손목을 쳑쳑얼거놋코 호각을「호루록호루록」부니 군도소ᄅᆡ가 여기셔도 졔격 졔격ᄒᆞ고 져긔셔도 졔격졔격ᄒᆞ여 경관이 네다셧모야드러 녀학싱은 급히병원으로 호송ᄒᆞ고 그청년은즉시 경찰셔로압거ᄒᆞ니 이ᄯᅢ 젹요ᄒᆞᆫ빈공원에 달흔젹만남엇더라



그여학싱은 조션ᄉᆞ름이오 일홈은 리졍임「李貞姙」인ᄃᆡ 리시종○○의 ᄯᅡᆯ이라 자식사랑ᄒᆞ는 마음이야 누가업스리오만은 리졍임의 부모 리시종ᄂᆡ외는 ᄂᆞᆺ게 졍임을나흐ᄆᆡ 슬하혈육이 다만일ᄀᆡ 여ᄌᆞ뿐인고로 그익지즁자홈이 남에셔 특별히귀ᄒᆞ게 녁이는ᄃᆡ인ᄃᆡ 그리시종의 엽집에사는 김승지○○는 리시종의 죡마고우뿐이ᄋᆞ니라 셔로지긔ᄒᆞ는 친구인ᄃᆡ 그 김승지도 역시늙도록 아달이업셔 슬허ᄒᆞ다가 졍임이낫튼ᄒᆡ에 관옥갓흔 남ᄌᆞ를나흐니 우업시깃버ᄒᆞ야 일홈을 영창「永昌」이라ᄒᆞ고 더ᄒᆞᆯ것업시 귀ᄒᆞ게 기르는터이라 리시종은 김승지를 만나면「ᄌᆞ네는져러ᄒᆞᆫ 아달을 두엇스니 마음에 오젹조켓ᄂᆞᆫ 나는일ᄀᆡ여아나마 남달니 샤랑ᄒᆞ네」ᄒᆞ며 이약이ᄒᆞ고 셔로친ᄌᆞ식갓치 귀히ᄒᆞ니 그두집 가졍에 셜지라도 셔로ᄉᆞ랑ᄒᆞ기를 남의ᄌᆞ손갓치 역이지아니ᄒᆞ더라

그두아ᄒᆡ가 두살되고 졔살되야 거름도ᄇᆡ호고 말도옴기ᄆᆡ 놀기도함ᄭᅴ놀고 작난도셔로ᄒᆞ야 친형뎨도갓치 졍다우며 ᄲᅡᆼ동이도갓치 ᄌᆞ라는ᄃᆡ ᄌᆞ라갈슈록 더욱심지가 상합ᄒᆞ야 글도갓치일고 조흔음식을 보아도 논아먹으며 영창이가아니오면 졍임이가가고 졍임이가 아니가면 영창이가와셔 잠시도셔로 ᄯᅥ나지아니ᄒᆞ야 그졍분이 졈졈깁허가더라

그두아ᄒᆡ가 나도동갑이오 얼골도비슷ᄒᆞ고 졍의도한ᄃᆞᆺ갓흐나 다만갓지아니ᄒᆞᆫ것은 계집아ᄒᆡ와 산아ᄒᆡ인고로 졍임의부모는 영창이를보면 ᄃᆡ단히 부러ᄒᆞ고

영창의부모는 졍임이를보면 미우탐을 닉는터인딕 졍임이일곱살 먹던히 졍월
딕보름날져녁에 리시종이 술이얼근이취ᄒᆞ야 마누라를 부르고 죠흔낫으로 드
러오는지라 부인은 마루로 마쥬나가며
(부인)어딕셔 져러케약쥬가 취ᄒᆞ엿소
(리시종)오날이 명일이아니오 김승지ᄒᆞ고 술을잔뜩먹엇셔 노릭에졍붓칠것
은 술밧게업소구려……허……허
ᄒᆞ면셔 압셔거니 뒤셔거니 안방으로 드러오더니
(리)마누라 오날졍임이 혼ᄉᆞ를확졍ᄒᆞ얏소……져의씨리 졍답게노는 영창이
ᄒᆞ고
(부)그ᄉᆡ짓 바지안에 똥무든것들을 졍혼이다 무엇이오닛가하…하…
(리)누가 오날신방을 츠려쥬나……그릭두엇다가 아모ᄯᅢ나 져의들나츠거든
초례시기지……마누라는 일싱영창이갓흔 아달하나두엇스면 좃켓다고 한탄
ᄒᆞ지아니ᄒᆞ얏소 ᄉᆞ위는왜 아달만 못혼가요……이익 졍임아 오날은 영창이
가 엇저아니왓느냐
ᄒᆞ는말ᄭᅳᆺ치 써러지기젼에 영창이가 문을열고드러오며
(영창)졍임아 졍임아 우리아버지는 부름만히 ᄉᆞ오셧단다 부름싸먹으러 우
리집으로가ᄌᆞ…어셔…어셔



(리)허…허…허 우리ᄉᆞ위오시나 어셔 드러오게 ᄌᆞ네집만 부름ᄉᆞ 왓다던가
우리 집에도 이럿케만히 ᄉᆞ왓다네
ᄒᆞ고 벽장문을열고 호도잣을 ᄂᆡ여쥬며 귀ᄒᆞᆫ마음을 이긔지못ᄒᆞ야 롱지거리를
붓치며 이런말 져런말ᄒᆞ다가 ᄉᆞ랑으로나가고 졍임이와 영창이는 부름을싸먹
으며 속달거리고 이약이ᄒᆞᄂᆞᆫ딕
(영창)이익졍임아 나는네ᄒᆞᆫ딕로 쟝가가고 너는나의게로 식집온다더라
(졍임)쟝가는 무엇ᄒᆞᄂᆞᆫ것이오 식집은 무엇ᄒᆞᄂᆞᆫ것이냐
(영)쟝가는 ᄂᆡ가 너ᄒᆞ고 졀ᄒᆞᄂᆞᆫ것이오 식집은네가 우리집에와셔 ᄉᆞᄂᆞᆫ것이
라더라
(졍)이익 누가그러드냐
(영)우리 어머니가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ᄃᆡ 너의아바지ᄒᆞ고 우리아바지ᄒᆞ고 그럿케
이약이ᄒᆞ셧다더라
(졍)이익 나는너에집에가셔 살기실타 네가우리집으로 식집오너라
두아히는 밤이깁도록 이러케놀다가 헤져갓ᄂᆞᆫᄃᆡ 그후부터는 졍임의 집에셔도
영창이를 ᄌᆞ긔 ᄉᆞ회로알고 영창의집에셔도 졍임이를 ᄌᆞ긔며ᄂᆞ리로 인중ᄒᆞ야
두집관계가 더욱친밀ᄒᆡ지고 그두아히들도 혼인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는 아직못ᄒᆞ나 영창은 졍임의게로 쟝가갈줄로싱각ᄒᆞ고 졍임은 영창의게

로 식집갈줄로알더라

졍임과 영창이가 이쳐럼졍답게 지닉더니 영창이 열살되던히삼월에 김승지가 초산군슈로 셔임되니 가족을다리고 즉시군아에 부임홀터인디 졍임과 영창이가 셔로떠나기를 이셕히넉이는고로 리시종집에셔는 가권을 솔거ᄒᆞ는것이 불가ᄒᆞ다고권고ᄒᆞ나 김승지는 가계가원티 유족지못ᄒᆞᆫ터이라 군수의 박봉을가지고 식비와교졔를 졔ᄒᆞ면 본가에 보닐것이 남지아니 ᄒᆞ겟스니 가족을 다리고 가는것이 필요가될ᄲᅮᆫ아니라 셔령가ᄉᆞ는 리시종의게 젼혀부탁ᄒᆞ야도 무방ᄒᆞ깃지만은 김승지는 ᄌᆞ긔아달영창을 잠시라도 보지못ᄒᆞ면 의졍을 이긔지못ᄒᆞ야 쳠식이 달지아니ᄒᆞᆫ터인고로 부득이ᄒᆞ야 부인과 영창을다리고 초산으로 떠나가는ᄃᆡ 가는로뎡은 인쳔으로가셔 긔션을타고 슈로로갈 쟉졍으로 상오구시 남ᄃᆡ문박 인쳔항렬차로 발뎡홀시 뎡임이는 남ᄃᆡ문녁에나아가셔 방금떠나는 영창의손을잡고 셔로쳔졀히 젼별ᄒᆞᆫ다

(뎡)「영청아 너ᄒᆞ고나ᄒᆞ고 잠시를 떠나지못ᄒᆞ다가 네가져러케멀니가면 나는 놀기는 누구ᄒᆞ고ᄀᆞᆺ치놀고 글은누구ᄒᆞ고 ᄀᆞᆺ치닑으며 너를보고십흔 싱각을 엇더케 참는단말이냐」

(영)「나도 너를두고 멀니가기는 ᄃᆡ단히심심ᄒᆞ다만은 우리아바지 어머니가 나를보고 십허ᄒᆞ실싱각을ᄒᆞ면 떠러져 잇슬수업고나 오냐잘잇거라 내쉽



사리올나오마」

졍임은 품에셔 ᄉᆞ진ᄒᆞᆫ쟝을 ᄉᆞᆸ니더니 그 ᄃᆡ등에「경셩즁부교동二三九」라고 써셔 영창이를주며

(뎡)이것보아라 이것은ᄂᆡ ᄉᆞ진이오 이ᄃᆡ등 ᄲᅳᆫ것슨 우리집통호수다 만일이 사진을일흔지 통호를 이져바리거든 삼삼구만 싱각ᄒᆞ여라」

영창이는 ᄉᆞ진을밧아들고 그말ᄃᆡ답도 밋쳐 못ᄒᆡ셔 괴쳑소ᄅᆡ가「쌍쌍」나며 차가떠ᄂᆞ고ᄌᆞᄒᆞ니 졍임은 급히차에나려셔 ᄉᆞ르를나가는 유리창을향ᄒᆞ야「부ᄃᆡ……잘가거라」ᄒᆞ며 옷깃에 방울방울 떠러지는 눈물을씻는ᄃᆡ 괴관ᄎᆞ연통에셔 거문연긔가 물큰물큰 올나가며 차는살닷듯ᄒᆞ야 어느겨를에 간곳도업고 다만 룡산강언덕우에멀니 의의ᄒᆞᆫ버들빗만 머물넛더라

졍임이는 영창이를 젼송ᄒᆞ고 초창ᄒᆞᆫ마음을 익이지못ᄒᆞ야 집ᄉᆞ지 울고드러오니 리시종의부인도 셥셥ᄒᆞᆫ마음을 이기지 못ᄒᆞ든ᄎᆞ에 ᄌᆞ긔귀ᄒᆞᆫ ᄯᆞᆯ이 울고드러오는것을보고 눈물을 흘니다가 ᄌᆞᆫ말로 영창이는 속히다여온다고 그ᄯᆞᆯ을위로ᄒᆞ고 달ᄂᆡ엿는ᄃᆡ 뎡임이는 어린아히라 엇치붓쳐될사ᄅᆞᆷ의 인뎡을아라 그러ᄒᆞ리오만은 ᄀᆞᆺ치ᄌᆞ라던 뎡리로 영청의싱각을 ᄒᆞᆫ시도잇지못ᄒᆞ야 졔눈에 ᄌᆞᆫ흔것만보면 영창이의게 보ᄂᆡ쥬다고 ᄉᆡᆨᄉᆡᆨ 싸두엇다가 인편잇슬적마다 보ᄂᆡ기도ᄒᆞ고 영창의편지를 어졔보앗셔도 오ᄂᆞᆯ또오기를 기다리며 ᄉᆡᆺ피고시울ᄊᆡ와 달

붉고눈헐적마다 시름업시 셔텬을바라고 눈셥을찡긔더라
뎡임이가 영창이싱각ᄒᆞ기를 이럿틋괴롭게 그히일년을 십년ᄀᆞᆺ치 다지ᄂᆡ고 그
이듬히봄이 차차되야오ᄆᆡ 영창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연싱겨셔「쩌날ᄊᆡ
에 쉽사리온다더니 일년이지ᄂᆡ도록 엇지아니오노」ᄒᆞ고 문박게셔 ᄌᆞ취소ᄅᆡ만
나도 아마영창이가 오나보다 아ᄎᆞᆷ에 ᄶᅡ치만지져도 아마영창이가 오나보다ᄒᆞ
야 하로도 몃번식문밧을 ᄂᆡ다보더니 ᄒᆞ로는 안마당에 바삭바삭 ᄒᆞ는소ᄅᆡ에
창문을열고보니 ᄉᆞ름은 아모도업고 회리바름이 슬슬돌다가 ᄀᆞᆺ치는ᄃᆡ 일긔가
엇지화창ᄒᆞᆫ지 회고헌 면회담에 아지랑이가 아물아물ᄒᆞ며 멀니들니는 버들피
리소ᄅᆡ가 ᄉᆞ름의회포를 은근이 도드는지라 어린마음에도 별안간 울젹ᄒᆞᆫ싱각
이나셔 후뎡을도라가 건일다가보니 도화가 웃는듯이 피엿거늘 가늘고가는손
으로 ᄒᆞᆫ가지를 색거가지고 드러오며

(뎡)어머니 도화가 이럿틋피엿스니 작년에영창이 쩌나든ᄊᆡ가 발셔되엿슴
니다그려」

(부인)「ᄎᆞᆷ 셰월이쉽기도ᄒᆞ다 어졔ᄀᆞᆺ든일이 발셔돌시로고나」

(뎡)「영창이는 올ᄊᆡ가되얏는ᄃᆡ 왜아니옵닛가 요ᄉᆞ이는 편지도 보름이지ᄂᆡ
도록 아니오니 왼일인지 궁금ᄒᆞᆷ니다」

(부인)아마 쉬올ᄊᆡ가 되닛가편지도 아니오나보다



(졍임)아니그러면 올나올ᄊᆡ에 입고오게 겹옷이나 보ᄂᆡ줍시다 아바지가 드
러오시거든 소포로붓칠돈을 달ᄂᆡ가지고」

ᄒᆞ며 쟝문을열고 시로지어 차곡차곡 너어두엇든 면쥬 겹바지 져고리와 분홍
솜팔두루막이를ᄂᆡ여 ᄇᆡᆨ지로두어번싸고 그겨죽에 유지로또ᄒᆞᆫ번싸셔 노ᄉᆞᆫ으로
열십ᄌᆞ 우물뎡짜로 이리져리 얼글지음에 리시종이 이마에 ᄂᆡ쳔짜를 쓰고 얼
골에 외ᄉᆞᆺ치피여셔 드러오더니

(리)「원…이런변괴가잇나…응…응…」

(부)「변괴가 무ᄉᆞᆫ변괴오닛가」

(리)「응々……응々」

(부)「각갑ᄒᆞ니 어셔말ᄉᆞᆷ좀ᄒᆞ시오」

(리)초산셔 민요가낫ᄃᆡ야

(부)민요낫스면 엇더케되얏단 말ᄉᆞᆷ이오

(리)엇더케되고말고 긔가막혀 말ᄒᆞᆯ수업셔 이 ᄂᆡ부에온보고좀보아
ᄒᆞ고 평북관찰ᄉᆞ의 보고벗긴초를내여 부인에압흐로 더지는ᄃᆡ 그집은원ᄅᆡ 문
한가인고로 그부인의 학문도신문ᄒᆞᆫ쟝은 무른히 보는터이라 부인이 그보고초
를 집어들고보니
보고셔 관하초산군에셔 거 이월이십팔일 하오ᄉᆞᆷ시경에 난민쳔여명이 불의에

취집ᄒᆞ야 관아에츙화ᄒᆞ고 잡셕을 난루ᄒᆞ와 관ᄉᆞ와 민간슈빅호가 연소ᄒᆞ옵고 민간ᄉᆞ상이 이십여인에 달ᄒᆞ야 야료난폭홈으로 강계진위ᄃᆡ에셔 병졸일소ᄃᆡ를 급파ᄒᆞ야 익일상오십시에 총히 진압되엿ᄉᆞ온ᄃᆡ 히군수와 급기가족은 힝위를 불명ᄒᆞ옵기 방금조ᄉᆞ중이오나 종내종젹을 부지ᄒᆞ깃ᄉᆞ오며 민요쥬창자는 엄밀히 슈식ᄒᆞᆫ결과로 쟝두오인을 포박ᄒᆞ야 본부에엄수ᄒᆞ옵고 자에보고홈

부인이 보고ᄎᆞᆯ보다가 깜짝놀나며

(부인)「이게왼일이오 졔식구가 다죽엇나보구려」

ᄒᆞᄂᆞᆫ말에 졍임이ᄂᆞᆫ 뎡신이아득ᄒᆞ야 얼골빗치 하야지며 아모말못ᄒᆞ고 그모친을 한참보다가 싸던옷보를 ᄉᆞ르ᄅᆞᆯ놋더니 눈에셔구슬ᄀᆞᆺ흔 눈물이 쑥々쏘다지며 목을놋코우니 부인도 어진마음에 뎡임이우ᄂᆞᆫ것을보고 따라우ᄂᆞᆫᄃᆡ 리시종은 영창이싱각도 둘지가되고 평싱에지긔ᄒᆞ던 친구김승지를 싱각ᄒᆞ고 비참ᄒᆞᆫ마음을 억졔치못ᄒᆞ야 졍신업시 안졋다가 다시마음을 졍돈ᄒᆞ고 우ᄂᆞᆫ졍임이를 위로ᄒᆞᆫ다

(리)엇지된ᄉᆞ긔를 ᄌᆞ셔히 아지도못ᄒᆞ고 울기ᄂᆞᆫ 왜들우러 졍임아 어셔긋쳐라 ᄂᆡ일은ᄂᆡ가 초ᄉᆞᆫ을나려가셔 ᄌᆞ셔히 아라보깃다 셜마죽기야 ᄒᆞ엿깃ᄂᆞᆫ냐 참이상도ᄒᆞ다 김승지ᄂᆞᆫ 민요맛ᄂᆞᆯ ᄉᆞ름이아닌ᄃᆡ 그게왼일이란 말이냐 그러



ᄂᆞ인지ᄂᆞᆫ 무젹이라ᄂᆞᆫᄃᆡ 김승지ᄀᆞᆺ쳐 어진ᄉᆞ름이 죽을리ᄂᆞᆫ업스리라……김승지가 마음은군자요 글은문장이로ᄃᆡ 일에당ᄒᆞ여셔ᄂᆞᆫ 짝업시흐리것다……이런말로 졍임에 우름을 말류ᄒᆞ고 가방과 양탄ᄌᆞ를내여 ᄂᆡ일쵸산ᄯᅥ ᄂᆞᆯ힝장을차려놋코 셰ᄉᆞ름이 슈식이만면ᄒᆞ야 묵묵히안졋더니 하인이 져녁상을 드려다놋코 부인을 ᄃᆡᄒᆞ야 위로ᄒᆞᆫ말이「ᄂᆞᆯᄂᆞᆫ온말슴이야 엇지다ᄒᆞ오릿가마은 셜마엇더ᄒᆞ오릿가 너무격졍마시고 진지어셔 잡슈십시오」ᄒᆞ고 나가ᄂᆞᆫᄃᆡ 졍임이ᄂᆞᆫ밤먹을싱각도 아니ᄒᆞ고 치마ᄭᅳᆫ만 비비를며 쏘고리교안졋고 리시종과 부인은상을닥아놋코 막두어술짐 ᄯᅳᆫᄂᆞᆫᄯᅢ에 어ᄃᆡ셔「불이야불이야」ᄒᆞᆫ소ᄅᆡ가 들니며 안방셔창에 연긔그림ᄌᆞ가 둥굴둥굴빗취고 마루뒤문 밧게ᄂᆞᆫ 화광이 충텬ᄒᆞ니 밥먹던리시종은 슈져를손에든치로 급히ᄂᆞ가보니 ᄌᆞ긔집굴둑에셔 불이이러ᄂᆞ셔 혼ᄲᅩᆺ은셔으로도라 부억뒤ᄭᅡ지 돌고 혼ᄲᅩᆺ은 동으로쌧쳐 건ᄂᆞᆫ방머리ᄭᅡ지ᄂᆞ ᄀᆞᆺᄂᆞᆫᄃᆡ 솔솔부ᄂᆞᆫ 셔북풍에 비비를여 도라가ᄂᆞᆫ불길이 눈ᄲᅡᆷ짝ᄒᆞᆯ시이에 왼집안에빙도니 리시종집사ᄅᆞᆷ들은 발을동동구르ᄂᆞ 엇지ᄒᆞᆯ슈업스며 여간슌검헌병셔ᄂᆞ와셔 웃둑욱둑 셧스ᄂᆞ 다쓸ᄃᆡ업고 변변치못ᄒᆞᄂᆞ마 소방ᄃᆡ도 밋쳐오기젼에 봄벗헤밧삭마ᄅᆞᆫ잡이 젼치가다타바리고 그ᄲᅮᆫ아니라 화불단힝이라고 그엽으로 ᄒᆞᆫ레붓ᄒᆞᆫ 김승지집ᄭᅡ지 일시에 소존셩이 되얏더라 ※

힝장을싸놋코 ᄂᆡ일아참일쥭이 초산ᄯᅥᄂᆞ랴고ᄒᆞ던 리시종은 뜻밧게락미지익을

당ᄒᆞ야 가족이모다 로숙ᄒᆞ게된 경위에잇스니 엇지먼길을 떠ᄂᆞᆯ슈잇스리오 민망ᄒᆞᆫ마음을 억지로참고 급히빈잡을구ᄒᆞ야 북부 ᄌᆞ하동 일빅팔통십호 삼십구간와가를사셔 겨우안돈ᄒᆞ고 ᄂᆞ미 발셔일쥬일이 지ᄂᆡ쓰니 초산소식은 죵시묘연ᄒᆞ다 쟈긔와 김승지에관계가졍리로 ᄒᆞ던지 의리로ᄒᆞ던지 싱ᄉᆞ간에 한번아니가 보지못ᄒᆞᆯ터이라 슴쥬닐수유를 어더ᄀᆞ지고 즉시떠ᄂᆞ 초산을 ᄂᆡ려ᄀᆞ보니 읍ᄂᆡᄂᆞᆫ 쟈긔집모양으로 빈터에 탄지ᄲᅮᆫ이오 촌ᄀᆞᄂᆞᆫ 강계대병졍이와셔 폭민슈식ᄒᆞᄂᆞᆫ통에 다다라ᄂᆞ고 ᄀᆡ암이 식기ᄒᆞᄂᆞ 불수업스니 군수의거취를 무러볼곳도 업ᄂᆞᆫ지라 그린근읍으로 다니며 ᄋᆞ모리탐지ᄒᆞ야도 종ᄂᆡ김승▲에 소식을알수업고 단지들니ᄂᆞᆫ말은 쵸산군슈ᄀᆞ 글만됴ᄋᆞᄒᆞ고 슐만먹ᄂᆞᆫ고로 뎡ᄉᆞᄂᆞᆫ 모다간활ᄒᆞᆫ아젼에 소미속에셔 놀다가맛츰ᄂᆡ 민요를 맛낫다ᄂᆞᆫ 말ᄲᅮᆫ이라 ᄒᆞᆯ일업셔근 이십일만에 집으로도라오니 그부친이 단녀오면영창에소식을 알ᄭᅡᄒᆞ고 눈이ᄲᅡ지도록 기다리던 졍임이ᄂᆞᆫ 락심쳔만ᄒᆞ야 한업시비창히 넉이ᄂᆞᆫ모양은 눈으로 츰아볼수가업더라

리시종이 초산셔집에도라온지 제슴일되든날 관보에「시종원시종 리○○ 의원면본관」이라 계저되얏스니 이ᄯᅢᄂᆞᆫ 갑오ᄀᆡ혁뎡칙이 실픽된이후로 졈졈간영이 금달에 츌립ᄒᆞ야 ᄯᅳᆺ잇ᄂᆞᆫ사ᄅᆞᆷ은 일변비쳑ᄒᆞᄂᆞᆫ 시ᄃᆡ인고로 엇던혐의쟈가 리시종 쵸산간ᄉᆞ이를엿보고 셩총에 모함ᄒᆞᆫ바이라 리시종은 쳬임된후로 다시셰상



에 나번득일싱각이 업셔 손을ᄉᆞ졀ᄒᆞ고 문을다드니 ᄯᅳᆺ다운풀은 ᄯᅳᆯ에가득ᄒᆞ고 문젼에 거마가 드무러동ᄂᆡ사ᄅᆞᆷ이라도 그집이 누구에집인지아지 못ᄒᆞᆯ만치 되엿더라

리시종은 이로붓터 틔ᄯᅳᆯ인연을 ᄯᅳᆫ어바리고 ᄯᅳᆺ과ᄉᆡ로벗을슴아 만년을 한가히보ᄂᆡ고 졍임이ᄂᆞᆫ 그부친에게 소학을ᄇᆡ와 공부ᄒᆞ며 깁고깁흔규즁에셔 적적히지ᄂᆡᄂᆞᆫ ᄃᆡ 영창이싱각은 ᄯᅢᄯᅢ로암암ᄒᆞ야 영창이와갓치 가지고놀던유희졔구만 눈에ᄲᅢ여도 쵸챵ᄒᆞᆫ빗치 눈셥ᄉᆞ이에 가득ᄒᆞ며 혹ᄯᅮᆷ에영창이를맛나ᄌᆞ미잇게놀다가 셥々히ᄭᅥ히여 불ᄯᅢ도잇슬ᄲᅮᆫ아니라 한히두히지나 철이ᄎᆞᄎᆞ나갈ᄉᆞ록비감ᄒᆞᆫ마음이더욱결연ᄒᆞ야 렬녀편을볼젹마다 소리업ᄂᆞᆫ 눈물도만히 흘니ᄂᆞᆫ터이언만은 리시종ᄂᆡ외ᄂᆞᆫ 졍임에 나먹ᄂᆞᆫ것을 민망히역여 마조안기만ᄒᆞ면 항상아름다온 ᄉᆡᄉᆞ위구ᄒᆞ기를 근심ᄒᆞ고 김승지집 이약이ᄂᆞᆫ 입박게ᄂᆡ지도 아니ᄒᆞ더라 임염ᄒᆞᆫ셰월이 흐르ᄂᆞᆫ듯ᄒᆞ야 졍임에나히 어언간 십오셰가되니 그히 칠월열일헤날은 리시종에 회갑이라 그날슈연잔치ᄯᅳᆺ헤 손은다 헤져가고 넘어가ᄂᆞᆫ히가셔산에 걸녓ᄂᆞᆫ ᄃᆡ 리시종ᄂᆡ외ᄂᆞᆫ 져녁하ᄂᆞᆯ져문 놀빗과 푸른나무 느진미암이소리 손마루북창압헤 느런이안져셔 늙은회포를 셔로이약이ᄒᆞᆫ다

(리)포말풍등이 감가련이라더니 사ᄅᆞᆷ에일싱이야 츰가련ᄒᆞᆫ것이야 어졔갓든 우리청츈이 어느결을에 발셔회갑일셰 지나간날이 이럿듯 쉬ᄀᆞᆺ스니 죽을날

도 이럿케쉬오깃지 평성에 스업하나못ᄒᆞ교 쥭을날이 ᄀᆞ가오니 한심ᄒᆞᆫ일이오구려

(부)그러키에 말슴이오 쥭을날은갓가오나 쓸만ᄒᆞᆫ조식도 ᄒᆞ나못두얏스니우리는 셰상에 난본의가업소구려 졍임이하나 시집가고보면 이만년신셰를 누구의게 의탁ᄒᆞᆫ단말슴이오

(리)그러치마는 나는양조ᄒᆞᆯ마음은 조곰도업셔 얌젼ᄒᆞᆫ스위나엇어셔 ᄋᆞ들ᄀᆞᆺ치 다리고잇지

(부)그리ᄒᆞᆫ들 스위가조식만 ᄒᆞ깃슴잇가만은 ᄒᆞ기는 우리 쥭기젼에 스위나엇어야 ᄒᆞ깃슴니다

스위교르기는 며ᄂᆞ리엇기보다 어렵다는ᄃᆡ 요시셰상쳥년들을 눈역여보면그 경박ᄒᆞᆫ모양이 모다 졔집결단ᄂᆡ고 나라망ᄒᆞᆯ조식들 ᄀᆞᆺ흡ᄃᆡ다 사위지목도 죠심히구ᄒᆞᆯ것이야요

(리)그야무슨다 그럴나고 그런집조식이 그럿치

이럿케 슈작ᄒᆞ는ᄊᆡ에 엇던스ᄅᆞᆷ이 사랑중문ᄭᅡᆫ에셔 「뎡임아졍임아」 부르며 안손님 아니게시냐ᄒᆞ고 뭇더니 큰기침두어번ᄒᆞ고 들어오면셔

(엇던스ᄅᆞᆷ)루님져는가깃슴니다

(부인)이럿케속히가면 무엇ᄒᆞ는 져녁이ᄂᆞ먹고 이야기ᄂᆞᆫᄒᆞ다가 달ᄲᅳ거든쳔



ᄉᆞ히가게그려 어셔올나와……

부인은 그사ᄅᆞᆷ을 이처럼말류ᄒᆞ며 하인을불너셔「술상을 차려오ᄂᆞ라 진지를지어셔 가져오너라」ᄒᆞᄂᆞᆫᄃᆡ 그스ᄅᆞᆷ은 뎡임이외ᄉᆞᆷ촌이라 슈연치하ᄒᆞ고 집으로도라갈터인ᄃᆡ 그루님의 말류ᄒᆞᄂᆞᆫ졍의를 몌치지못ᄒᆞ야 마루로올ᄂᆞ와 안더니 건ᄂᆞᆫ방압헤셧ᄂᆞᆫ 뎡임이를 ᄒᆞᆫ참보다가

(외ᄉᆞᆷ촌)뎡임이ᄂᆞᆫ 금년으로 몰ᄂᆞ보게 조랏슴니다그려 오ᄅᆡ지 아니ᄒᆞ야 셔랑보시게 되얏ᄂᆞᆫ데요

(리)그ᄭᅳ짓년 키만엄부렁ᄒᆞ면 무엇ᄒᆞ는 ᄇᆡ혼것이잇셔야 시집을가지

(부)그러치아니ᄒᆞ야도 우리가지금 그격졍일세 혼쳐ᄂᆞ 조흔데 ᄒᆞᆫ곳 쥼ᄆᆡᄒᆞ게 그려……

(외ᄉᆞᆷ촌)쥼ᄆᆡ잘못ᄒᆞ면 쌈이셰번이라ᄂᆞᆫᄃᆡ 잘못ᄒᆞ다가 쌈이ᄂᆞ 어더맛게요…하…하…

(리)싱질사위 잘못엇ᄂᆞᆫ것은 격뎡업고 쌈맛ᄂᆞᆫ것만 염녀되나하……하……

(리)허……허……허……

(외ᄉᆞᆷ촌)혼쳐ᄂᆞᆫ 져긔 조흔곳잇습ᄃᆡ다 옥동박과장의 셋ᄌᆡ 아달인ᄃᆡ ᄂᆞᆫ흔열일곱살이오 공부ᄂᆞᆫ 지작년에 스립소학교에셔 졸업ᄒᆞ고 쥭시 관립즁학교에 립학ᄒᆞ야 올에ᄉᆞᆷ학년이 되얏답ᄃᆡ다 그안히ᄂᆞᆫ 져의팔촌쳐남의 누의인ᄃᆡ 그

집문벌도 훌륭ᄒᆞ고 가졔도 불빈ᄒᆞᆯᄲᅮᆫ아니라 졔일낭ᄌᆞ의 얼골도결곡ᄒᆞ고 지조도 쵸월ᄒᆞ야 ᄂᆡ마음에는 ᄆᆡ우 합당합듸다마는 ᄆᆡ부의향에 엇더ᄒᆞ신지요

리시죵의귀에 그말이 번쩍띄여 「응 그리히 합당ᄒᆞ면 하다마다 쟈네마음에합당ᄒᆞ면 ᄂᆡ의향도좃치 별슈잇ᄂᆞᆫ 나는양반도 취처안코 부자도취처안코 다만신랑ᄒᆞ나만 고르네」ᄒᆞ면셔 ᄆᆡ우깃버ᄒᆞ고 뎡임이외숌촌은 이런이약이를 밤이되도록ᄒᆞ다가ᄀᆞᆺ는ᄃᆡ 그후로ᄂᆞᆫ 신랑의션을 본다ᄂᆞᆫ둥 ᄉᆞ쥬를 밧ᄂᆞᆫ다ᄂᆞᆫ둥 ᄒᆞ더니 하로ᄂᆞᆫ 리시죵이 ᄇᆞᆰ은간지를ᄂᆡ여「팔월십ᄉᆞ일젼안랍치 동일션힝」이라 써셔다 홍실로 허리를ᄆᆡ여놋코 부인과의론ᄒᆡ가며 신랑의 의양단ᄌᆞ를 젹ᄂᆞᆫ다 뎡임이ᄂᆞᆫ 영창이싱각을 이질만ᄒᆞ다가도 식집이니쟝가니 혼인이니 ᄉᆞ위니 ᄒᆞᄂᆞᆫ말을드르면 ᄉᆡ로이싱각이 뭇득뭇득 나ᄂᆞᆫ터이라 외숌촌이 혼쳐의론ᄒᆞᆯ쎡에도 영창이싱각이 ᄲᅥ에ᄉᆞ못쳐셔 건ᄂᆞᆫ방으로 드러가「눈물을몰ᄂᆡ씨스며 속마음으로」부모가나를 이왕 영창에게 허락ᄒᆞ엿스니 나ᄂᆞᆫ죽어 ᄇᆡᆨ골이되여도 영창의안ᄒᆡ이라 비록영창이ᄂᆞᆫ 불힝ᄒᆞ얏슬지라도 나ᄂᆞᆫ결코 두사ᄅᆞᆷ의쳐ᄂᆞᆫ 되지아니 ᄒᆞᆯ터이오 져야졋씨ᄂᆞᆫ 아모리즁ᄆᆡ흔다ᄒᆞ야도 입에션바람만 ᄃᆡ릴걸」ᄒᆞᄂᆞᆫ싱각이 ᄂᆡ슈에ᄆᆡ쳐스ᄆᆡ 녀ᄌᆞ의 붓그러온마음으로 그부모의게ᄂᆞᆫ 아모말도 못ᄒᆞ고 지ᄂᆡ든터이더니 ᄐᆡᆨ일단ᄌᆞ 보ᄂᆡ는것을보ᄆᆡ 가슴이션ᄉᆞᆺᄒᆞ고 심긔가좃치못ᄒᆞ야 몸을비ᄭᅳ틀며 춤다가못ᄒᆞ야 그모친게ᄃᆡ고 응석쳐럼 가만히ᄒᆞᄂᆞᆫ말이라



(졍임)나ᄂᆞᆫ 식집가기시려

(부인)이년 계집아ᄒᆡ년이 식집가기 시른것은 무엇인고 조흔것은 무엇이냐

(리시죵)그년이 무엇이리 나죵에ᄂᆞᆫ 별망측ᄒᆞᆫ말을다듯겟네

(졍)아바지 어머니 보고십허 식집가기시려요

(부)아비어미 보고십다고 평싱식집아니갈가 이못싱긴년아

부인의말은 쳘모르ᄂᆞᆫ말로 돌너ᄂᆞᆫ말이라 졍임이ᄂᆞᆫ 뎡식ᄒᆞ고 ᄭᅮ러안지며

(졍)그런것이 아니올시다 아바지게셔 열녀ᄂᆞᆫ 불경이부란글을가라쳐쥬셧지오 나를이왕 영창이와 결혼ᄒᆞ시고 지금ᄯᅩ 시집보ᄂᆡ다 ᄒᆞ시니 부모가 ᄒᆞᆫᄌᆞ식을 두사ᄅᆞᆷ의게 허락ᄒᆞ시ᄂᆞᆫ법이 잇슴닛가 아모리 영창이종젹은 아지못ᄒᆞ나 다른곳으로 시집가기ᄂᆞᆫ 쥭어도 아니가겟슴니다

리시종이 그말을듯더니 벌ᄯᅥ기이러셔며 졍임의머리치를 휘여잡고 평싱에 손지검ᄒᆞᆫ번 아니ᄒᆞ던그ᄯᅳᆯ을 여긔져긔 흠부루쥐여박으며

(리)요년 요못된년 그게무슨 방졍마진말이냐 요년혓쥴기를 ᄲᅡᆫ어노흘나 네가영창이례단을 밧앗단말이냐 네가영창이와 쵸례를지냇단말이냐 네가간ᄃᆡ업ᄂᆞᆫ영창이를 싱각ᄒᆞ고 식집못갈의리가 무엇이란말이냐 아모리어린년인들ᄒᆞ며죽일년잡쥐듯ᄒᆞ니 부인은겁이나셔

(부)고만두시오 그년의 어린마음에 부모를 ᄯᅥ러지기시려 ᄎᆞᆯ모로고 ᄒᆞᄂᆞᆫ말

이지오 어셔고만츰으시오

(리)요년이어ᄃᆡ 쳘몰나셔ᄒᆞᄂᆞᆫ 말이오 제일ᄉᆡᆼ을 큰일ᄂᆡ고 부모의가슴에 못박을년이지……우리가 져하나를길너셔 죽기젼에 셔방이나어더맛겨 근심을이질가ᄒᆞᄂᆞᆫ터에……요년이……

ᄒᆞ며 ᄒᆞᆫ츰ᄯᅡ려쥬니 부인은 놀납고 가엽쓴마음에 살이ᄯᅥᆯ니고 가슴이졀여셔달녀들며 리시종의 손목을잡고 졍임이머리를 ᄲᅦ여노아 간신히말녓더라

리시종은 원ᄅᆡ구습을 ᄀᆡ혁ᄒᆞᆯᄉᆞ상이 잇ᄂᆞᆫ터인고로 셜령그ᄯᆞᆯ이 과부가 되엿슬지라도 ᄀᆡ가라도 식일것이오 뎡혼ᄒᆞ얏던것을 거릿겨셔 ᄯᆞᆯ의일평ᄉᆡᆼ을 그릇ᄒᆞ지아니ᄒᆞᆯ사ᄅᆞᆷ이라 졍임의가슴속에 쳘셕ᄀᆞᆺ치굿은 마음은아지못ᄒᆞ고 다만ᄌᆞ긔속마음으로「뎡임의말도 올치아니ᄒᆞᆫ바ᄂᆞᆫ 아니로ᄃᆡ ᄂᆡᄉᆡᆼ각을ᄒᆞ던지 뎡임의 ᄉᆡᆼ각을ᄒᆞ던지 쇼々ᄒᆞᆫ일로 젼졍의 ᄃᆡ불힝을 취ᄒᆞᆷ이불가ᄒᆞ다」ᄉᆡᆼ각ᄒᆞ야 뎡임이를 압졔슈단으로 그런말은 다시못ᄒᆞ게 ᄒᆞ야놋코 그날붓터 침모를부르다 숙슈를 안치다ᄒᆞ야 밧비밧비혼례를 쥰비ᄒᆞᄂᆞᆫᄃᆡ 밧어노흔날이라 눈ᄭᅡᆷᄶᅡᆨ ᄒᆞᆯᄉᆞ이에 발셔열ᄉᆞ흔날 져녁이되얏스니 그 잇흔날은 ᄇᆡᆨ마탄신랑이 올날이라 졍졀이 옥ᄀᆞᆺ흔졍임의 마음이야 과연엇더ᄒᆞ다ᄒᆞ리오 건ᄂᆞᆫ방에 혼ᄌᆞ누엇스니 이ᄉᆡᆼ각 져ᄉᆡᆼ각 별ᄉᆡᆼ각다ᄂᆞᆫ다 부모의ᄯᅳᆺ을 슌죵ᄒᆞᄌᆞᄒᆞ니 인륜의 죄인이되야 디하에가셔 영창을볼낫치 업슬ᄲᅮᆫ아니라 이ᄂᆞᆫ 부모의ᄯᅳᆺ을 슌죵홈이아니오 곳부모를 올치



못ᄒᆞᆯ ᄉᆞᄅᆞᆷ을 만드ᄂᆞᆫ것이오 부모의ᄯᅳᆺ을 좃지아니ᄒᆞᄌᆞᄒᆞ니 그계칙은 죽ᄂᆞᆫ슈밧게업ᄂᆞᆫᄃᆡ 늙은부모를두고 참혹히죽으면 그죄ᄂᆞᆫ ᄎᆞ라리 시집가ᄂᆞᆫ것이 오히려경ᄒᆞᆯ지라 아모리ᄉᆡᆼ각ᄒᆞ야도 엇지ᄒᆞᆯ줄모르다가 ᄯᅩᄒᆞᆫᄉᆡᆼ각이뭇득ᄂᆞ며 혼ᄌᆞ말로「싀집이란것이 다무엇말ᄂᆞ 죽은것이야 셔양 사람은 시악시부인도 만타더라」ᄒᆞ고 벌ᄯᅥᆨ이러셔셔 안방으로 드러가보니 그부모ᄂᆞᆫ 잔치분별ᄒᆞ기에 종일곤뢰ᄒᆞ다가 맛츰잠이 곤히든모양이라 문갑셜합에 열쇠픠를 ᄯᅢᄂᆡ가지고 골방으로드러가 금궤를열고 십원권 오원권 잇ᄂᆞᆫᄃᆡ로 집어ᄂᆡ여 손가방에너셔 들고ᄂᆞ오니 시계ᄂᆞᆫ 아홉졈을(ᄯᅢᆼᄯᅢᆼ)치ᄂᆞᆫᄃᆡ 안방으로 들락날락ᄒᆞ며 와글와글ᄒᆞ든 ᄉᆞᄅᆞᆷ드른 하ᄂᆞ도업시 괴괴ᄒᆞ고 오동ᄂᆞ무 그림ᄌᆞᄂᆞᆫ ᄯᅳᆯ에가득ᄒᆞ며 벽틈에 엿치소ᄅᆡ가(ᄶᅡᆨ각ᄶᅡᆨ각)ᄒᆞᆯᄲᅮᆫ이라 다시 건ᄂᆞᆫ방으로드러가 조희ᄂᆡ여편지써셔 ᄌᆞ리우에펴놋코ᄂᆞ와셔 그길로 문을나셔며 한번도라보니 부모의ᄉᆡᆼ각이 마음을 ᄶᅡ르ᄂᆞ억지로참고 두어거름에 ᄒᆞᆫ번식도라보며 효ᄌᆞ문네거리와셔 인력거를불너타고 남ᄃᆡ문밧글나셔니 이ᄯᅢ가을하ᄂᆞᆯ에 얄분구름은 고기비ᄂᆞᆯᄀᆞᆺ치 조각조각연ᄒᆞ고 그ᄉᆞ이로 한박휘 둥근달이 ᄇᆞᆰ근광채를 잠샌ᄌᆞ랑ᄒᆞ고 잠샌숨기ᄂᆞᆫᄃᆡ 연약ᄒᆞᆫ마옴이 ᄌᆞ연ᄉᆡᆼᄒᆞ야 흐르ᄂᆞᆫ눈물을 씻고도 씻ᄂᆞᆫ사이에 발셔인력거채를 덜컥놋ᄂᆞᆫᄃᆡ 남ᄃᆡ문졍거장에셔 료령소ᄅᆡ가(덜넝덜넝)나며 불근모ᄌᆞ쓴사ᄅᆞᆷ이「후상후상후상오이데마ᄉᆡᆼ서」ᄒᆞ고 외ᄂᆞᆫ소리가 장마속 논골에 ᄆᆡᆼ공이울듯ᄒᆞ니 이ᄯᅥᆨ는 하

오십시십오분 부산급힝츠 떠ᄂᆞᆫ는씩라 인력거에 급히나려 동경ᄉᆞ지가는 열락츠표를사가지고 이등열차로오르니 호각소릭가「호르룩」나며 긔관츠에셔「파푸파푸」ᄒᆞ고 남ᄃᆡ문이 졈졈머러지니 압길에 운산은 창창ᄒᆞ고 츠우ᄋᆡ 연화는막막ᄒᆞ더라

그ᄲᅡ른차가 밤ᄉᆡ도록가다가 그잇흔날아참에 부산에 도착ᄒᆞ니 안방에셔 ᄃᆡ문밧도ᄌᆞ셔히 모로고지ᄂᆡ던 졍임이는 쳐음이럿케 멀니온ᄃᆡ이라 집에잇슬ᄯᅢ에 동경을가ᄌᆞ면 남문역에셔 연락츠표를 ᄉᆞ가지고 부산가셔 연락션타고 하관ᄉᆞ지가고 하관셔 동경가는 츠를다시타고 신교역에셔 나린다는 말을듯기는드럿지만은 남ᄃᆡ문역에셔 부손ᄉᆞ지 왓스ᄂᆞ 련락션졍박ᄒᆞᆫ 부두가는 길을 아지못ᄒᆞ야 뎡거쟝머리에셔 주져쥬져ᄒᆞ다가「화륜션타는션창을 어ᄃᆡ로가오」ᄒᆞ고 무르ᄆᆡ 이사름도 물ᄉᆞ름이보고 져사름도 물ᄉᆞ름이보니 졍임이가집ᄯᅥ날ᄯᅢ에 머리는 젼반ᄀᆞᆺ치ᄯᅡ흔치로 옷슨 분홍츈ᄉᆞ쳑솜 옥ᄉᆡ모시다린치마 입엇든치로 그ᄃᆡ로쑥나온 그모양이라 누가이샹히 보지아니ᄒᆞ리오 그만흔 ᄂᆡ외국 사름이모다눈역여보더니 그즁에엇던사름이아ᄅᆡ위를 한츰흘터보다가「여보자근아씨 이리와ᄂᆡ가 부두ᄉᆞ지가는길에 가라쳐줄터이니」ᄒᆞ고 압셔ᄉᆞ가는ᄃᆡ 말숙이 빗취는 동량갓속으로 반드ᄅᆞᆯᄒᆞᆫ 샹투는 외로쑥ᄯᅥ러지고 후쥴근ᄒᆞᆫ 왜ᄉᆞ두루막이는 기름ᄯᅴ가 즈르ᄅᆞᆯ흘넛더라



졍님이가 약기는 츰ᄉᆡ굴네쌀만 ᄒᆞ지만은 셰상구경은 쳐음ᄀᆞᆺ흔터이라 다른염녀업시 그사름을ᄯᅡ라 부두로나가는ᄃᆡ 부두로 갈것갓흐면 사름만히다니는 탄탄ᄃᆡ로로 갈것이언마는 이사름은 졍임이를ᄉᆞᆯ고 ᄭᅩ불ᄭᅩ불ᄒᆞ고 좁ᄃᆡ좁은 골목으로 이리빙빙돌고 져리빙빙도라 나가다가 엇던오막ᄉᆞ리 놉흔등 달닌집으로 드러가며

(그사름)「나는이집에셔 불일좀보고 곳가라쳐줄것이니 이리잠간드러와」

졍임이는 ᄇᆡ탈시간이 느져가는가ᄒᆞ고 근심될ᄲᅮᆫ 아니라 녀ᄌᆞ의몸이 낫션곳에 혼ᄌᆞ와셔 산아히놈ᄯᅡ라 남의집에드러갈ᄉᆞ듸이 업는터이라

(졍임)길모로는 사름을 이쳐럼가라쳐 주고자ᄒᆞ시니 ᄃᆡ단히 고맙슴니다 나는여기셔 잠간기다릴터이니 어셔볼닐보십시오

ᄒᆞ고셧더니 그사름이 그집으로 드러간지 ᄒᆞᆫ츰만에 엇던계집두년이 머리에는 왜밀뒤범벅을 ᄒᆡ붓치고 즁문간에셔 기웃기웃ᄂᆡ다보며「아에그 그쳐녀 얌젼도ᄒᆞ다 아마셔울사름이지」ᄒᆞ고 나오더니「여보 좀간드러오구려 갓치오신손님은 지금담ᄇᆡ한ᄃᆡ 잡숫는ᄃᆡ요 우리집에는 아모도업소 녀편네가 녀편네들만 잇는 집에드러오는것이 무슨관계가잇소 어셔좀간 드러왓다가시오」ᄒᆞ며 한년은 손목을잡아ᄃᆡ리고 한년은 등을미는ᄃᆡ 엇지ᄒᆞᆯ수업시 안마당으로 드러셧다 갈가라쳐주마든 사름은 마루ᄭᅳᆺ헤 걸터안져 담ᄇᆡ를먹다가 졍임이를보더니

(그사ᄅᆞᆷ)션창을무르면 ᄇᆡ타고 어ᄃᆡ를가ᄂᆞᆫ길이야
(졍임)동경ᄭᆞ지감니다
(그사ᄅᆞᆷ)집은 어ᄃᆡ이고
(졍임)셔울이야요
(그사ᄅᆞᆷ)동경은무엇ᄒᆞ라가
(졍임)유학ᄒᆞ라요
(그사ᄅᆞᆷ)유학이고 무엇이고 져러케큰쳐녀가 길도모르고 엇재혼자나셧셔
(졍임)지금ᄀᆞᆺ치 ᄇᆞᆰ은셰상에 쳐녀말고 아모라도 혼자나온들 무슨 관계잇슴닛가
(그사ᄅᆞᆷ)일홈은무엇이고 나은몃살이야
이럿케쟈셔히 뭇ᄂᆞᆫ바ᄅᆞᆷ에 졍임이ᄂᆞᆫ 의심이나며 셔울뉘집아달도 일본으로 도망가다가 그집에셔 부산경찰셔로 뎐보ᄒᆞ야 붓잡아가더니 아마우리 아바지ᄭᅴ셔 뎐보ᄒᆞᆫᄭᆞᄃᆞᆰ으로 경찰셔에 별슌검을보ᄂᆡ 조사ᄒᆞ나보다 ᄒᆞᄂᆞᆫ생각이나셔
(졍임)ᄇᆡ탈시간이 느져가난ᄃᆡ 길도아니 가라쳐쥬고 남의일홈과 나ᄂᆞᆫ 아라 무엇ᄒᆞ랴오
ᄒᆞ고 도라셔나오는ᄃᆡ 그ᄉᆞᄅᆞᆷ이 달녀들며 잡담졔ᄒᆞ고 ᄭᅳ러다가 뒤방에넛코방문을 밧그로글더라



그사ᄅᆞᆷ은 식쥬가셔방인ᄃᆡ 셔울사ᄅᆞᆷ과상약ᄒᆞ고 엇던집계집아ᄒᆡ를 식쥬가감으로 ᄭᅩ야내ᄂᆞᆫ판이라 셔울사ᄅᆞᆷ은 그계집아ᄒᆡ를 유인ᄒᆞ야 어느날몃시ᄎᆞ로 보낼것이니 아모조록 놋치지말고 잘단속ᄒᆞ라는 약조가잇는터에 그계집아ᄒᆡ는 아니오고 ᄋᆡᄆᆡᄒᆞᆫ졍임이가 걸녓스니 ᄋᆞ모리 소ᄅᆡ를지른들 무엇ᄒᆞ며 야단을친들 무슨슈가 잇스리오만은 ᄒᆞ도무리ᄒᆞᆫ 경우를 당ᄒᆞ야 긔가 막히ᄂᆞᆫ즁「이럿케 법률을모시ᄒᆞ는놈은 여러ᄉᆞᄅᆞᆷ의게알니면 도리가잇스리라」생각ᄒᆞ고 ᄒᆞᆫ번악을쓰고 소ᄅᆡ를질넛더니 그놈이 감언리셜노 달ᄂᆡ다못ᄒᆞ야 희쵸리쯤질을 ᄃᆡᄂᆞᆫ판에 젼신이피뭉치가되고 과연견딜슈 업쓸ᄲᅮᆫᄋᆞ니라 쥭고ᄌᆞᄒᆞ야도 쥭을슈도업스니 이런일은 평생에 듯지도보지도 못ᄒᆞ다가 ᄭᅮᆷ결갓치 이디경을당ᄒᆞᄆᆡ 분ᄒᆞᆫ마음이 이를것업스나 엇지ᄒᆞᆯ수업시 갓쳐잇더니 ᄉᆞᄒᆞᆯ되던날밤에 문틈으로 풍덩이ᄒᆞᆫ마리가 드러와셔 쇠잔ᄒᆞᆫ등불을 쳐셔ᄭᅳ는ᄃᆡ 갑갑ᄒᆞ고 무셔문생각이나셔 불이나켜놋코 밤을새오리라ᄒᆞ고 들창문지방을 더듬더듬ᄒᆞ며 셕냥을 ᄎᆞ지니 셕냥은업고 다부러진ᄃᆡ칼이 틈에ᄭᅵ여 잇는지라 그칼을집어들고 이리ᄒᆞᆯ가 져리ᄒᆞᆯ가 ᄒᆞᆫ츰생각ᄒᆞ다가 맛츰ᄂᆡ문창쓸을오린다 칼도엇지잘들고 힘도엇지셰던지 밤ᄉᆡ도록 겨우칭쓸ᄒᆞᆫᄀᆡ를 오리고나니 ᄃᆞᆰ은셰홰를울고 먼촌에ᄀᆡ짓는소ᄅᆡ가나는ᄃᆡ 그창솔오려ᄂᆡᆫ틈으로 밧게걸닌고리를 벗기고 가만히나오니 쥭엇다가 사라ᄂᆞᆫ듯이 상쾌ᄒᆞᆫ지라 ᄎᆞᄎᆞᆫ긜을ᄎᆞᄌᆞ가며 ᄉᆡᆼ각ᄒᆞ니「이번에 이고ᄉᆡᆼᄒᆞᆫ것도 도

시의복을 잘못찰인ᄉᆞ닭이오 또동경을가드릭도 조션의복닙은 사름은ᄒᆞᆫ등ᄃᆡ우
를ᄒᆞᆫ다는ᄃᆡ 이모양으로는 ᄋᆞ모데도 가지못ᄒᆞ겟다」ᄒᆞ고 어나모동이에서셔 놀
시기를 기다려가지고 곳오복점을 ᄎᆞ져가셔 일본옷ᄒᆞᆫ벌을 ᄉᆞ셔입고 그오복점
쥬인여편네의게 간쳥ᄒᆞ야 머리를 ᄉᆞᄅᆡ을여 일본ᄉᆞᆨ을찌고 또그여편네의게 션
창ᄀᆞ는 길을무러셔 ᄎᆞ져가니 이ᄯᅢ맛참 연락션일지환이 ᄯᅥ나는지라 즉시그ᄇᆡ
를타고 망망ᄒᆞᆫ바다빗치 하날에다흔곳으로 ᄀᆞ더라
이갓흔 곤란을지ᄂᆡ고 동경을향ᄒᆞ야 가난졍임이가삼일만에 목적더신교역에나
리니 그시가의화려ᄒᆞ고 번창홈이 참쳐음보는구경이니 려관을 어ᄃᆡ로 가는지
모르고 ᄒᆞᆫ참방황ᄒᆞ다가 덥허놋코 인력거에 올나안즈니 별안간말ᄒᆞ는 벙어리
소ᄅᆡ듯는 귀먹어리가되야 인력거군의 뭇는말을 대답ᄒᆞ지 못ᄒᆞ고 다만 손을
드러 되는ᄃᆡ로ᄀᆞ라치니 인역거는 ᄀᆞ라치는ᄃᆡ로가고 졍님이는 뭇는ᄃᆡ로 ᄀᆞ라
쳐셔이리져리 한업시 가다가어나곳에 다ᄃᆞ르니「샹야원」이라 현판을붓친집압
헤셔 오며ᄀᆞ는 ᄉᆞ름의게광고를 돌니는ᄃᆡ 그광고ᄒᆞᆫ쟝을 밧아보니 무슨말인지
의미는 알수업스나 단지 숙박료일등에얼마 이등에얼마라고 느러쓴것을 보ᄆᆡ
그집이 려관인줄알고 인력거를ᄂᆞ려 드러ᄀᆞ니 발셔녀죵과 반또들이 나와마지
며 드러가는길을 인도ᄒᆞ는지라 인ᄒᆞ야그집에 려관을졍ᄒᆞ고 위션 려관주인의
게 일본말을ᄇᆡ우니 원ᄅᆡ총명이 과인ᄒᆞ고 학문도 즁학교졸업은 되는ᄃᆞ이라일



곱달만에 못ᄒᆞᆯ말업시 능통ᄒᆞᆯ뿐아니오 문법도 막힐곳업시 무슨셔젹이던지 능
히보게되ᄆᆡ 그ᄒᆡ봄에「소젹쳔구」일본녀ᄌᆞ 대학교에 입학ᄒᆞ엿는ᄃᆡ 그심즁에는
항상부모의싱각 영창이싱각 ᄌᆞ긔신셰싱각이 ᄒᆞᆫ딕뒤뭉쳐셔 쥬야로간졀ᄒᆞᆫ터이
라 그러ᄒᆞᆫ뇌심즁에 공부도잘되지아니 ᄒᆞ련마는 시험볼ᄯᅢ마다 그셩젹이 평균
졈일공공(一〇〇)에 ᄯᅥ러지ᄉᆞ아니ᄒᆞ야 ᄒᆡ마다최우등으로 진급ᄒᆞ니 동경녀학
싱의게 리졍님의 일홈을 모를ᄉᆞ름이업시 명예가굉쟝ᄒᆞ더라
ᄒᆞ로는 학교에셔하학ᄒᆞ고 려관으로 도라오니 엇던녀학도가 무슨쳥첩을 가지
고와셔 아모ᄶᅩ록오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ᄒᆞ고가는ᄃᆡ 그쳥첩은「녀학싱일
요강습회 창입총회」쳥첩이오 그취지는 녀학싱이 일요일마다모야셔 학문을강
습ᄒᆞᄌᆞ는ᄉᆞᆺ이라 졍님이는 근심이쳡쳡ᄒᆞ야 만ᄉᆞ가무심ᄒᆞᆫ 터이지마는 그 취지
셔를본즉 ᄆᆡ우아름다온 일인고로 그날모힌다는곳으로 갓더니 녀학싱 수십명
이와셔 ᄀᆡ회ᄒᆞ고 임원을션졍ᄒᆞ는ᄃᆡ 회쟝은리졍임이오 셔긔는산본영ᄌᆞ라졍님
이는억지로 ᄉᆞ양치못ᄒᆞ고 회쟝셕에올셔ᄒᆞ야 문뎨를ᄂᆡ여결고 ᄎᆞ례로강연ᄒᆞᆫ후
에 쟝ᄎᆞ폐회ᄒᆞᆯ터인ᄃᆡ 이ᄯᅢ에 엇던소년이 셔긔산본영ᄌᆞ의 소ᄀᆡ를 어더회셕에
드러오더니 ᄌᆞ긔는 죠션유학싱 강한영이라ᄒᆞ며 강습회 조직ᄒᆞ는것을 무ᄒᆞᆫ히
충찬ᄒᆞ고 이회에 쓰는재졍은 자긔ᄀᆞ 찬셩젹으로 어ᄃᆡ서지던지 젼담ᄒᆞ겟노라
ᄒᆞ고 셜명ᄒᆞ며 위션금화ᄇᆡᆨ원을 긔부ᄒᆞ는셔슬에 셔긔의특청으로 강소년이 그

회에 재우쵹탁이 되얏는듸 이씩부터강소년은 일요일마다 졍님을맛ᄂᆞ면 지극히 반가와ᄒᆞ고 듸단히 졍답게구면셔 아못조록 친근히ᄉᆞ귀랴고ᄒᆞ며 혹엇던씩에 공원으로 놀나가쟈기도ᄒᆞ고 야시구경도 갓치가기도ᄒᆞ나 졍님의 졍직ᄒᆞᆫ듸도는 비록녀ᄌᆞ지라도 특별히친합ᄒᆞ지 아니ᄒᆞ거ᄂᆞᆯ ᄒᆞ물며 남ᄌᆞ와ᄒᆞᆫ가지 구경다닐리가 잇ᄉᆞ리오 그런말들을젹마다 졍숙ᄒᆞᆫ말로 듸답ᄒᆞ미 다시는 그런말을 못ᄒᆞ는터이오 산본영ᄌᆞ도 종종려관으로 차져오는듸 ᄒᆞ로는 엇더로파ᄀᆞ와자긔는 산본영자의 모친이라ᄒᆞ며 자긔ᄯᆞᆯ과 친졀히 지ᄂᆡ니 감샤ᄒᆞ다고 치하ᄒᆞ고가더니 그후로는 자조쟈조다니며 혹과자도 갓ᄃᆞ주며 혹화장품도 ᄉᆞᄃᆞ주어 업던졍분을 갑작이ᄉᆞ귀자ᄒᆞ며 각금가다ᄀᆞ던지 난말로 녀ᄌᆞ의 평ᄉᆡᆼ신셰는 남편을 잘맛ᄂᆞ기에잇ᄃᆞ고 이약이ᄒᆞ더라

졍임이 동경온지가 어언간 다셧히가되여 그히하긔시험에 졸업ᄒᆞ고 중셔슈여식날 졸업쟝과 다슈ᄒᆞᆫ 상품을타ᄆᆡ 그마당에모힌 고등관인과 ᄃᆡ외국신ᄉᆞ들의 칭송이 비빨치듯ᄒᆞ니 그런령광을 비ᄒᆞᆯ곳이 업슬ᄲᅮᆫᄋᆞ니오 그졸업장ᄒᆞᆫ장이 금쥬고박구지ᄋᆞ니 ᄒᆞᆯ만치귀ᄒᆞᆫ것이라 그마음에 오작깃부리오만은 졍임이는찬양도 귀에 심상히들니고 조흔마음도 별로업셔 즉시여관으로 도라와 삼칭문을 얼고 란간에의지ᄒᆞ야 먼하ᄂᆞᆯ에 긔이ᄒᆞᆫ구름 피여오르는것을 바라보며 ᄂᆡ두의 거취를 엇더케ᄒᆞᆯ가싱각ᄒᆞ고 안젓는듸 손본노파가오더니 졸업ᄒᆞᆫ것을치하ᄒᆞᆫᄃᆞ



(노파)이번에 우등으로 졸업ᄒᆞ얏ᄃᆞᆫᄒᆞ니 ᄃᆡ단히 감쵹ᄒᆞᆫ일이오구려듯기에엇지 반가온지 ᄂᆡ가치하ᄒᆞ러왓지오

(졍임)감쵹이랄것 무엇잇슴닛가

(노파)져럿케 년소ᄒᆞᆫ터에 발셔ᄃᆡ학교 졸업을ᄒᆞ얏스니 참고마온 일이야 ᄂᆡ마음에 이처럼반가올젹에 당신이야 오작깃부며 부모가드르시면 얼마나 조와ᄒᆞ시겟소

(졍임)나는조ᄒᆞᆯ것도 업슴이다 학교교ᄉᆞ 여러분의 덕턱으로 졸업은 ᄒᆞ얏스나 ᄋᆞ모것도 ᄋᆞᄂᆞᆫ것운업스니 무엇이조흐릿가

(노파)그런겸ᄉᆞ는 다고만두시오 내가모ᄅᆞᆫ다구요……그러ᄂᆞ 우리ᄯᆞᆯ 영자야말로 인제겨우고등과 이년급이니 언제ᄂᆞ 대학교졸업을 ᄒᆞᆯ는지오 당신을치여다보자면 고소ᄃᆡ쏙ᄃᆡ기갓지

(졍임)별말ᄉᆞᆷ을 다ᄒᆞ심니ᄃᆞ 영ᄌᆞ의지조로 잠간이지오 근심ᄒᆞ실것 무엇잇슴잇가

(노파)당신은얼골도 어엽부고 마음도 얌젼ᄒᆞ거니와 지조는 엇지져럿케 비상ᄒᆞ며학문은 엇지져럿케좃소 나는볼젹마다 부러워

(졍임)쳔만의말ᄉᆞᆷ이오

(노파)당신은 시집을가더ᄅᆡ도 얼골이 져와갓치곱고 학문도 ᄃᆡ학교 졸업ᄒᆞᆫ

신랑을 엇더야ᄒᆞ겟소

(졍임)……

(노파)이셰상에는 져와ᄀᆞᆺ흔 짝이업슬걸

(졍임)……

(노파)남여물논ᄒᆞ교 혼인은 부모가졍ᄒᆞ는 것이지만은 이 이십셰긔시 대에야 부모가 혼인졍히 쥬기를기대리는 사름이누가잇는 혼인이란것은 졔눈에들고 졔마음에 만는사름과 ᄒᆞᆯ것이지

(졍임)……

(노파)왜ᄋᆞ모리약이도 ᄋᆞ니ᄒᆞ고 얼골에 근심ᄒᆞ는 빗치잇스니 웬일이오 내ᄀᆞ혼인 이약이ᄒᆞ닛ᄀᆞ ᄋᆞ마시집갈일이 근심되나보구려 혼인은 일평싱에 큰 관계ᄀᆞ 달닌일인ᄃᆡ 엇지근심이 되지아니 ᄒᆞ릿가 그럿치만은 근심ᄒᆞᆯ것업소 니ᄀᆞ조흔혼쳐 쳔거ᄒᆞ리다 이말이 실업슨말아니오 자셔히 드러보시오 니ᄀᆞ 남의즁ᄃᆡ혼일에 잘못소기ᄒᆞᆯ리도업고 ᄯᅩ셔양ᄉᆞ름이나 아미리가ᄉᆞ름의게 쳐 거ᄒᆞ는것이아니라 갓흔나라 ᄉᆞ름이자 ᄯᅩ자격이 당신과 ᄯᅳᆨ갓흔터이니 두고 두고 평싱구ᄒᆞᆫ들 엇지그런 합당ᄒᆞᆫ곳을 고를수잇스릿가 다른ᄉᆞ름이 아니라 일요강습회에 ᄃᆞᆫ니는강한영씨말ᄉᆞᆷ이오 당신도만히 맛ᄂᆞᆫ보셧겟지만은 얼골 인들 좀얌젼ᄒᆞ며 지졍인들 여간조흡더잇가 그양반이 ᄂᆡ집에 주인을졍ᄒᆞ고



ᄉᆞᆷ년을 이와갓치지ᄂᆡ는ᄃᆡ 그욱겻흔마음은 오ᄃᆞᆫ날이ᄂᆞ이ᄂᆞᆯ이나 맛찬가지오 학문으로 말ᄒᆞᆫ드릿도 이번에 ᄃᆡ학교법률과 졸업을ᄒᆞ얏스니 당신만 못ᄒᆞ지 안이ᄒᆞ고 재산으로말ᄒᆞᆫ드릿도 죠션에멋재안이ᄀᆞᄂᆞᆫ 부ᄌᆞ랍ᄃᆡ다 ᄂᆡ가죠션ᄉᆞ름의 부ᄌᆞ이고 안인것을 엇지알겟소마ᄂᆞᆫ 이곳에와셔 돈쓰ᄂᆞᆫ것만보면 알겟습ᄃᆡ다 그양반이 돈을써도 공익적으로나쓰지 외입ᄒᆞᆫ번 ᄒᆞᄂᆞᆫ것도 못보앗셔요 만일ᄂᆡ말이 못밋거던 본가로편지라도 히셔알어보고 망셔리지말고 혼인을졍ᄒᆞ시오 그집은 ᄃᆡ구인ᄃᆡ 이번에나가면 셔울로 이ᄉᆞᄒᆞᆫ답ᄃᆡ다 압만골나도 이러ᄒᆞᆫ곳은 다시구경도 못ᄒᆞᆯ터이니 놋처바리고 후회ᄒᆞᆯ것업시 두말말고 뎡ᄒᆞ시오 당신도 그양반을 모르ᄂᆞᆫ터ᄋᆞ니어니와 이늙은ᄉᆞ름이 셜마 남못ᄒᆞᆫ노릇 시기랴고거짓말ᄒᆞᆯ리잇소 다시싱각ᄒᆞᆯ것업시 ᄂᆡ말ᄃᆡ로ᄒᆞ시오

그노파ᄂᆞᆫ 졸업치하ᄀᆞ 변ᄒᆞ야 혼인소기가되더니 잔말을 기다랏케 ᄂᆞ러놋ᄂᆞᆫᄃᆡ 졍님이ᄂᆞᆫ 죠곰도듯기가 귀치ᄂᆞᆫ터이라

(졍님)그러ᄒᆞ겟슴니다 녀ᄌᆞ가되여 ᄉᆡ집ᄀᆞ ᄂᆞᆫ것도 변ᄒᆞᆯ일이 안이오 당신이 혼인즁ᄆᆡ ᄒᆞ시ᄂᆞᆫ것도 고이치안이 ᄒᆞᆯ터이나 그러나 나ᄂᆞᆫ집ᄯᅥ놀ᄯᅥ로부터 마음에 뎡ᄒᆞᆫ바이잇셔 다시ᄂᆞᆫ변통 못ᄒᆞᆯᄉᆞ뎡이올시다 그ᄉᆞ졍은 말ᄒᆞᆯ필요가업거니와만일ᄂᆡ가 ᄉᆡ집을갈것ᄀᆞᆺ흐면 그런조흔곳을바리고 엇던곳을 다시구ᄒᆞ릿가만은 ᄂᆡ가ᄉᆡ집안에가기로 결심ᄒᆞᆫ이상에야 다시ᄒᆞᆯ말잇슴잇ᄀᆞ 혼인이짜

에ᄃᆡᄒᆞ야셔는 두말ᄉᆞᆷ마시기를 바람니다
이처럼 싹도업시 ᄭᅳᆫ어말ᄒᆞᄆᆡ 노파는다시 말못ᄒᆞ고 무연히도라갓는ᄃᆡ 그후부
터 일요강습회에도 다시가디안이ᄒᆞ고 잇더니 집싱각이 간졀ᄒᆞ야 집에도라가
늙은부모나 봉양ᄒᆞ고 녀학교ᄂᆞ 셜립ᄒᆞ야 쳥년녀ᄌᆞ들이나 가라치며 오ᄂᆞᆫ셰월
을 보ᄂᆡ리라ᄒᆞ고 귀국ᄒᆞᆯ힝쟝을 ᄎᆞ리ᄂᆞᆫ즁인ᄃᆡ ᄒᆞ로는구진비가 종일와셔 심긔
가ᄃᆡ단히 울젹ᄒᆞ든ᄎᆞ에 비ᄀᆡ이고 달돗ᄋᆞ오ᄂᆞᆫ경이 ᄒᆞ도조ᄀᆡ에 ᄉᆡ옷을 가라입
고 샹야공원에가셔 달구경ᄒᆞ고오다가 불인지가를 지나며보니 픽ᄒᆞᆫ연엽에ᄂᆞᆫ
비흔젹을 머무르고 맑고맑은 물결에ᄂᆞᆫ 우에도관월교요 밋헤도관월교라 그운
치를ᄉᆞ랑ᄒᆞ야 도라갈줄을 이져바리고 셧더니 그악소년을 맛나칼침을 맛고병
원으로ᄀᆞᆺᄂᆞᆫᄃᆡ 병원에셔 의ᄉᆞ가상처를 진찰ᄒᆞ니 장흔은 후문을비ᄀᆡ고 빗나갓
고 창구ᄂᆞᆫ이분이며 심은일촌에 지ᄂᆞ지못ᄒᆞ야 싱명은ᄋᆞ모관계업고 놀나셔 잠
시긔식ᄒᆞᆫ모양이라 의사ᄀᆞ 응급슈슐로 민속히 치료ᄒᆞ얏스ᄂᆞ 졍암이ᄂᆞᆫ 그러ᄒᆞᆫ
광경을 싱후에 처음당ᄒᆞ야 엇지혹독히 놀낫든지 죵시혼도ᄒᆞ얏다ᄀᆞ 간신히졍
신을차려 눈을ᄯᅥ보니 동편유리창에 볏이징징이빗취고 자긔ᄂᆞᆫ 놉흔와샹에 힌
홋이불을덥고 누엇난지라 엇지된곡졀을몰ᄂᆞ 속싱각으로「여긔ᄀᆞ 어대인고 우
리여관에ᄂᆞᆫ 져럿케 볏드러본적도업고 이러ᄒᆞᆫ와상도 업ᄂᆞᆫ대 ᄂᆡᄀᆞ 뉘집에와셔
이럿케누엇ᄂᆞ 의고이상도ᄒᆞ다 내ᄀᆞᄋᆞ마ᄭᅮᆷ을 이럿케ᄭᅮᄂᆞ보다」ᄒᆞ고 졍신을 수



습ᄒᆞ는ᄯᅢ에 의사ᄀᆞ 간호부를다리고 드러오는뒤에 슌ᄉᆞᄀᆞ ᄯᅡ라오는것을 보고
그졔야 젼신에 소름을쪽ᄭᅵ치며 어졔밤 공원싱각이ᄂᆞ는대 의ᄉᆞᄀᆞ 창구를씻고
약을ᄀᆞ라붓치더니 슌ᄉᆞᄀᆞ압흐로 닥어셔며 자졔뭇는다
(슌ᄉᆞ)당신의셩명은 누구라ᄒᆞ오
(졍임)리졍암올시다
(슌ᄉᆞ)년영은얼마요
(졍)십구셰올시다
(순)당신의집은 어대오
(졍)조션경셩북부자하동 일빅팔통십호올시다
(순)당신의부친은 누구요
(졍)리○○올시다
(순)부친의즉업은 무엇이오
(졍)우리부친은 관인이더니 지금벼슬업고 젼직은 시죵원시종이올시다
(순)형졔는몃분이요
(졍)이ᄉᆞ름ᄒᆞᄂᆞ 샌이올시다
(순)당신이무슨일로 동경에왓소
(졍)유학ᄒᆞ기위ᄒᆞ야 왓슴니다

(순)그러시오 그러면 여관은어대며 어느학교 멧년급에다니오
(졍)여관은 하곡구거판졍 십일번디 상야관이오 학교는 일본여자대학에 다니더니 거철월십일에 졸업ᄒᆞ엿슴니다
(순)미우곰ᄋᆞ운 일이오만은……어졔밤에 힝흉ᄒᆞ던놈은 ᄋᆞ든놈이오 모르는놈이오
(졍)안면은두어번 잇셔자요
(순)안면이잇스면 그놈의셩명을 알며어대셔보앗소
(졍)셩명은강한영이오 맛ᄂᆞ보기는 여학싱 일료강습회에셔 맛ᄂᆞ보앗슴니다
(순)셩명을드르니 그놈도 됴션ᄉᆞ름이오구려……그놈의 원적디와 류슉ᄒᆞ는 여관은 어대인자ᄋᆞ시오
(졍)본국ᄉᆞ름이로ᄃᆡ 거쥬도모르고 여관도 어ᄃᆡ인지 알수업스나 그주인은 산본이랍듸다
(순)그러면 무슨리유로 져일을당ᄒᆞ얏소
(졍)리유는 ᄋᆞ모리유도 업슴니다……녀ᄌᆞ되야 셰상에는 죄악이지오
졍님은 그말을 긋치며 두눈에눈물이 평도는ᄃᆡ 순ᄉᆞ는 낫낫치조ᄉᆞᄒᆞ야 수쳡에긔록히가지고 미우가업가고 위로ᄒᆞ며 의ᄉᆞ를 향ᄒᆞ야 ᄋᆞ못조록 잘보호ᄒᆞ고 속히치료ᄒᆞ라고 부탁ᄒᆞ고 나가더라



졍님이가 이러ᄒᆞᆫ 죽을욕을보고 병원에누엇스미 처량ᄒᆞ기도 이를것이업고 별셩각이 다나는ᄃᆡ「내가집을바리고 멀니떠나셔 늙은부모의 걱졍을시기니 이런 죄악을 왜 안이당ᄒᆞᆯ리ᄀᆞ잇나 그럿치만은 내부모를 져바린것이 안이오 즁ᄃᆡ ᄒᆞᆫ의리를 직힌일이니 ᄋᆞ모리 엇더ᄒᆞᆫ죄를 당ᄒᆞᆫ지라도 조금도신명에 붓그러울 것은업셔 내ᄀᆞ어려셔 부모의귀ᄒᆞᆷ밧고 영창이와굿치 자랄ᄯᅴ에 신셰ᄀᆞ 이지경 될줄누ᄀᆞ알앗든ᄀᆞ 그러ᄂᆞ 나는 무슨교싱을ᄒᆞ든지 이셰샹에 스라잇거니와 ᄇᆡᆨ골이 어느곳에 헤여진지 ᄋᆞ지못ᄒᆞᄂᆞᆫ 영창의외로온혼이 불상치안이ᄒᆞᆫᄀᆞ 내ᄀᆞ 밧비 디하에도라ᄀᆞ 영창이를 맛나셔어셔이런말을 좀ᄒᆞ얏스면 조겟구면 부모 싱각에 ᄒᆞᆯ슈업지……허……나의ᄒᆞᆫ몸이 던디의리긔를타고 부모의 혈육을밧어 이셰상에 ᄒᆞᆫ번나온것이 젼만고후만고에 다시엇기 어려온일인ᄃᆡ 이럿케 앗가온일싱을 락을모로고 지ᄂᆡ다가 죽는단말인가 춤팔ᄌᆞ도 긔박도ᄒᆞ다 싱각ᄒᆞᆯᄉᆞ록 면 면 간이녹아 신문이나보고 이져바리리라」ᄒᆞ고 간호부를 불너신문ᄒᆞᆫ쟝을가져 오ᄃᆡ셔 잠심ᄒᆞ야보는ᄃᆡ 졔ᄉᆞᆷ면잡보에는「김영창년십구」이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엇던 녀학싱과 무슨감졍이 잇던지 재작일하오일시경에 샹야공원 불인지가에셔 칼로지르다가 하곡구경찰셔로 잡혀갓ᄂᆞᆫᄃᆡ 그사ᄅᆞᆷ은 본ᄃᆡ됴션사ᄅᆞᆷ으로 영국 문과 대학에셔 졸업ᄒᆞᆫ쟈이라」계졔ᄒᆞ얏ᄂᆞᆫ지라 이잡보를 보다ᄀᆞ 하도이상ᄒᆞ야 한번다시보고 ᄯᅩᄒᆞᆫ번더 ᄒᆞᆯ터보ᄋᆞ도 갈ᄃᆡ업시 자긔의ᄉᆞ실인ᄃᆡ 힝픽ᄒᆞᄂᆞᆫ 놈의

셩명이다르ᄆᆡ 더욱이상ᄒᆞ야 혼자말로「ᄋᆞ이고이상도ᄒᆞ다 이말이뎡녕ᄂᆡ말인ᄃᆡ 그놈이 강ᄀᆞ안이오 김영창이란말은 왼말이며 영국문과대학 졸업이란말은 왼말인고 ᄋᆞ마신문에 잘못계지ᄒᆞ얏나보다 내ᄀᆞ 영창이싱각을 이져바리자고 신문을보더니」ᄒᆞ고 신문을ᄯᅡ에더지다ᄀᆞ 다시집어들고「김영창……문과대학졸업」ᄒᆞ며 무슨싱각을 ᄉᆡ로ᄒᆞᄂᆞᆫᄯᅥ에 누ᄀᆞ엇던업셔 ᄒᆞᆫ쟝을주고 나ᄀᆞᄂᆞᆫ ᄃᆡ 그엽셔ᄂᆞᆫ 지판소호출쟝이라 그엽셔를밧어두고 병낫기를기다리더니병원에 온지일주일이되ᄆᆡ 샹처도완젼히 치료되고 지판소에셔 부르ᄂᆞᆫ일ᄌᆞ가되엿ᄂᆞᆫ지라병원에셔 퇴원ᄒᆞ야 여관으로 도라가ᄂᆞᆫ길에 곳지판소로갓더라 졍님의 마음에 이럿트시 ᄉᆡ이고ᄉᆡ어둔 영창이ᄂᆞᆫ 졍님를리별ᄒᆞ고 부모를ᄯᅡ라 쵸산으로온후로 ᄂᆞᆯ이ᄀᆞ고 ᄒᆡᄀᆞ갈ᄉᆞ록 역시졍님이가 영창이싱각ᄒᆞᄂᆞ니 진비업스나 졍님을싱각ᄒᆞ며 가고ᄯᅩ오ᄂᆞᆫ 날을괴로이 지ᄂᆡ더니 ᄒᆞ로ᄂᆞᆫ 졍임의게셔 편지가와셔 반갑게ᄯᅥ여본다

(편지)리별ᄒᆞᆯᄯᅥ에 푸르던버들이 다시푸르럿스니 하ᄂᆞᆯ을바라보ᄆᆡ 눈이ᄯᅮ러지고자ᄒᆞ나 바다ᄂᆞᆫ망々ᄒᆞ고 소식은업스니 란간에의지ᄒᆞ야 공연히창ᄌᆞ가ᄉᆞᆫ어질ᄲᅮᆫ이오 ᄒᆡᄂᆞᆫ갓가오나 초산은멀며 바람은가뵈오나 이몸은무거와셔나라다니ᄂᆞᆫ술업은엇지못ᄒᆞ고 다만봄ᄯᅮᆷ으로ᄒᆞ야곰 괴롭게ᄒᆞ니 싱각을ᄒᆞ면 마음이 상ᄒᆞ고 말을ᄒᆞ자ᄒᆞ니 이가시구나



이러ᄒᆞᆫ 만지쟝셔를 ᄎᆡ다보지못ᄒᆞ고 막시쟉ᄒᆞ야 여기ᄭᅡ지 보ᄂᆞᆫᄃᆡ 숨문밧게셔 별안간「우직근 ᄯᅩᆨᄯᅥᆨ」ᄒᆞ며「아우」ᄒᆞᄂᆞᆫ 소ᄅᆡ가나더니 봉두란발도한놈 슈건도쓴놈들이 혹몽동이도들고 혹돌도들고 우 몰녀드러오면셔 위션리방형방 순로ᄉᆞ령을 밋친ᄀᆡ ᄯᅡ리듯ᄒᆞ며 한ᄲᅥᆫ ᄃᆡ청으로 올나와셔 군슈를잡아나리고 ᄒᆞᆫᄲᅥᆫᄂᆞᆫ ᄂᆡ아에 드러가셔 부인을ᄯᅳᆯ어ᄂᆡ여 ᄒᆞᆫᄯᅳᆫ에다가 비웃두름역듯이 동여안치고 여러놈이둘너서셔 ᄒᆞᆫ놈은「물을ᄯᅳᆯ여라」ᄒᆞᆫ놈은「쟝작덤이에」「올녀안쳐라」ᄒᆞᆫ놈은「셕유를ᄭᅥᆫ언져라」ᄒᆞᆫ놈은「구덩이를파라」ᄒᆞᆫ놈은 이ᄋᆡ들아셔라 학졍은 모다아젼놈의짓이니 그못싱간원놈이야 술이나죠아ᄒᆞ고 글이나잘짓지 무엇을안다더냐글얼것업시 집둥우리나ᄃᆡ셔 디경이나「넘겨라」ᄒᆞᄂᆞᆫᄃᆡ 그즁ᄒᆞᆫ놈이 쓱나셔며「글얼것업시 조흔슈잇다 두년놈을 큰두쥬속에 한데너셔 강물에ᄲᅥᆫ여 바리자」ᄒᆞ더니 그여러놈들이「이ᄋᆡ그말좃타……자……」ᄒᆞ며두주를 갓다가 군슈ᄂᆡ외를 집어넛코 자물쇠를치고 진상가ᄂᆞᆫ ᄯᅳᆯ병동이듯 이리칭칭얼고 져리칭칭얼거셔 여러놈이ᄲᅥᆫ메고 압록강으로 나가ᄂᆞᆫᄃᆡ 졍임이편지보던 영창이ᄂᆞᆫ 창졸간에 하ᄂᆞᆯ이문어지고 ᄯᅡ이ᄭᅥ지ᄂᆞᆫ듯ᄒᆞᆫ 란리를맛ᄂᆞᆫᄆᆡ 엇지ᄒᆞᆯ줄모르고 몸부림을ᄒᆞ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울다가 메고나가ᄂᆞᆫ 두주를좃ᄎᆞ가니 엇던놈은 귀통이도쥐여박고 엇던놈은 발길로ᄎᆞ기도ᄒᆞ며 엇던놈은「이ᄋᆡ 요놈은 젹은도젹놈이다 요런놈 씨밧아셔ᄂᆞᆫ 못쓰겟다 요놈마져 두쥬속에너라」ᄒᆞ더니 ᄯᅩ 엇던놈이